朝鮮日報
夕刊 三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公債發行限度로 陸、藏兩相正面衝突

萬難排除코 陸相不退轉決意

廣田內閣危機에直面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이 生命으로삼는 庶政一新具現의 所要經費는 內閣三長官의 審査를 終了하고 廣田首相에 提出한 後 近近 國策閣議를 再開하고 正式決定하기로되엿는데 閣內一部에는 重要財源決定의 關鍵을 쥔 國防費가 未解決된 現狀으로 이것을 決定하는것도 無意味하고 또國策決定은 閣議에서 決定될것이라는 點에서 異論을 唱道하는 者도잇서 陸海軍對財政當局의 國防費調整問題가 가장 重要視되고잇다 그런데 寺內陸相은 國際情勢의 緊迫에 鑑하야 國防充備는 絶對的으로必要하므로 엇더케든지 이遂行을 主張하고 이에 要하는 財源으로는 公債增發에依한以外에 他途는 가업다는데 對하야 馬場藏相은 陸의 要求를 滿足시키지못할程度의 公債를 增發하는것은 至極히 無謀한것으로 贊成키 難하다고 反對態度를 取하고 全然對蹠的意見을 發表하야 俄然 陸藏兩相間에 財源에關한 意見이 全然 相容되지안코 對立되고잇는것이 明白하게되엿다 寺內陸相은 國防充備計劃의 遂行과 庶政一新은 全軍一致의 要望이므로 如何한困難을 排除하더라도 이를 決行하려고 不退轉의 決意를 굿게하야 境遇에依해서는 馬場藏相과 一戰하는것도 不辭한다는 意向을 가지고잇스므로 馬場藏相이 公債增發主義를 緩和치안는限 豫算閣議에서 陸藏兩相의 正面衝突은 不可避하다고 하므로 廣田內閣은 國策閣議開催前後 軍事費問題로 重大危機에 直面할것이 아닌가 보여 이推移는 자못注目되고잇다

政治解決以外엔 打開策이全無

藏省獨自的査定開始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에 計上될 各省의 重要國策에 關한 經費要求書는 首相藏相에 提出되는 同時에 大藏省主計局에도 一通이 提出되므로 目下主計局에서는 各省關係官을 招致하고 詳細히 說明을 聽取하고잇는데 明年度豫算編成의 最大難關이라고 注目되는 陸海軍兩省의 重要國策에 關한 經費만은 아즉 提出되지안코 八月十日을 期限으로한 豫算概算要求提出期日을 기다려 本格的査定에 着手할밧게업스리라고 보고잇다 따라서 主計局으로서는 陸海軍豫算提出과 國策閣議의 開催와는 無關係로 目下 豫算編成準備를 急히 行하고잇는터인데 各省의 重要國策이라고 稱하는 經費中에는 從來의 要求를 모조리 提出한데 不過하고 緊急必要한 經費라고 認定키 難한바가 相當히 包含되어잇스므로 그査定에 着手한 後에는 相當히 峻嚴한 斧鉞을 加할것이라고 보고잇다 다만 問題는 陸海軍豫算의 內容如何에 잇서서 傳하는바와가티 그經費가 巨額에 達하야 增稅로서도 이를 補塡할 餘地가 업고 多額의 公債를 發行할수밧게업시될 境遇에는 大藏當局에서도 財政政策의 方針上 이에對하야 全幅的으로 同意키 難한 境遇도 生하므로 兩者의 調和는 자못 至難하다고 보여 首相藏相陸海兩相間의 政治的解決을 기다릴以外는 國策閣議를 開催하더라도 豫算編成方策의 進捗은 容易히 期待키 難하다고 보인다

亞爾然丁國 陸軍大增員

【부에노스아이레스一日發同盟】亞爾然丁政府는 陸軍擴充을 圖하기로 決定하고 一日 常備兵二萬七千五百人을 約四萬人으로 增員한다는 旨를 發表하얏다

曆年制會計年度

農相의反對理由

【東京電話同盟】政府의 議院制度調査會에서 審議中인 曆年制에依한 會計年度及 議會召集期의 變更에關하야 벌서부터 軍部及政黨 其他方面에 異論이 이러나는데 閣僚中에서도 島田農相은 農林所管大臣의 立場에서 曆年制採用에依한 會計年度及議會召集期의 變更에 反對意向을 갓고잇는것으로 보인다 卽 島田農相의 反對論點을 要略하면

一、曆年制에 依하야 會計年度를 變更하는때에는 十二月의 年末繁忙期를 다시 多忙하게하야 도로혀 一部事務 取引其他澁滯를 惹來할 念慮가잇다

一、議會召集期를 九月또는 七月의 어느便으로 變更하드래도 이때는 農繁期라 移秧收穫의 季節이므로 農村에잇서서 의 政治行動에 不利하다

一、變更을 必要로하는 事由의 하나이엿던 降雪區域의 選擧는 從來議會解散의 異例의境遇뿐이오 日本國土의 一部에局限된것이다 그리고 召集期를 變更하는때에는 任期滿了의 選擧期가 二月前後의 降雪期가 되는等等으로 島田農相은 今後모든 機會에 如上한 反對理由로서 그 反對主旨를 表明할것으로 觀測된다

政府에進言할 民政六大政策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政府에 進言할 革新政策에 關하야 來月五日부터 政務調査總會를 開하고 各部會案을 綜合的으로 審議한後 左의 六大政策을 統一하야 政務調査案을 作成할 意向을 가젓다

一、國民生活의 安定
農村及中小商工業等一切의 問題

二、憲政本義의 確立
議會制度、選擧法改正、行政機構의 改革、審判制의 擴充強化
公民教育等

三、外交方針의 確立

四、國防充實

五、財政確立
稅制改革을 包含함

六、綜合經濟政策
電力國策確立을 爲始하야 重要產業統制問題

大體以上中 民政黨으로서는 特히 國民生活의 安定에 重點을 置하고 政府에 進言할것이다

獨伊軍用機로 叛軍、本國進擊!

外人部隊도呼應加勢

【레뷔안二日發同盟】레뷔안市에 本部를둔 모록코叛亂軍은 總帥프랑코將軍以下 軍의首腦部를 集合하야 鳩首會議를 開하고 膠着狀態에 陷한 戰況打開에 腐心中인데 마츰내 大部隊의 外人部隊를 紅海兩路로부터 呼應하야 西班牙本國에 進擊하기로 決定하고 目下 着着準備를 進行中이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레뷔안飛行場에는 十數臺의 軍用機가 連續待機하는 一方 레뷔안으로부터 蘇丹에 至하는 道路에는 外人部隊를 滿載한 軍用트럭이 陸續하고잇는 現狀이오 軍用機中에는 明白히 獨逸의 윤켈스機一臺 伊太利의 마켄지機一臺가 認定되엿다

西政府國境警備嚴命

外人動亂參加阻止

【마드리드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擴大에 伴하야 佛國國境을 넘어 政府軍 或은 叛亂軍에 投하는 外國人은 日復日 激增하고잇는데 西班牙政府는 此等外國人의 動亂參加를 阻止할 目的으로 政府의 特別許可證을 가지지아니한 外國人에 對하야 入國을 禁止하기로 決定하고 二日午前 各國境警備隊에 對하야 그旨의 嚴命을 發하엿다

梧州大軍雲集

【香港二日發同盟】梧州로부터 來香한 旅行者의 談에依하면 目下 同地方에는 大軍이 雲集하야 [illegible]

佛閣僚間激論

對西班牙內亂對策

【巴里一日發同盟】佛蘭西政府는 一日 緊急國務會議에서 西班牙內亂에 對하야 將來行動의 自由를 保留하면서 原則的으로 嚴正中立을 維持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이決定에 이르기까지는 閣僚間에 消極、積極의 兩論이 對立하야 激論이 展開된模樣이다 就中 델보外相은 外交上의 立場에서 嚴正中立을 要求하고 西班牙政府가 注文한 武器輸出은 一切禁止할것이라는 强硬主張에 對하야 블룸首相은 人民戰線派가 伊太利政府의 西班牙叛亂軍援助에 激昂하야 어떤政府에서 有効對策을 要望하고잇는 實情이잇스므로 全然不問에 附하기는 困難하다는 立場에잇섯는데 結局 델보外相의 主張에따라 內亂勃發以前에 契約한 武器는 그輸出을 許可하기로 決定하엿스나 但 右決定은 單히 妥協的解決에 不過하며 國內左右兩派가 모다 滿足할것이 아니고 議會에서 如何한 激論이 闘爭될는지 모른다 또 英國政府와 事前에 協議할 模樣도 업스므로 此를 契機로 英佛[illegible]

對西國叛亂對策 佛政府正式決定

【巴里一日發同盟】佛國政府는 西班牙叛亂이 重大한 國際問題로 轉換하려는 情勢에 鑑하야 一日에 리제宮에서 르브랑大統領司會下에 緊急閣議를 開하고 前後三時間에 亘하야 그對策에 關하야 檢討를 거듭한結果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西班牙在留 佛國人의 撤退費로 一千萬法을 支出할것

一、佛國政府는 西班牙叛亂에 嚴正中立을 維持하는同時에 英伊兩國에 對하야 同樣의 態度를 堅持하도록 要請할것

一、英伊兩國政府가 佛國의 提言을 受諾한 境遇에는 西部地中海諸國에 對해서도 同樣의 提言을 할것

一、但 外國이 叛軍에 武器를 供給하는以上 佛國政府도 行動의 自由를 留保함

一、델보外相으로부터 佛領모록코에 伊太利의 飛行機가 不時着한 事實을 詳細報告하얏는데 모록코官廳의 正式報告를 接受한後 伊太利政府와 交涉하야 適當한 處置를 講究하기로되엿다

그리고 閣議散會後 佛國政府當局은 如左히 言明하엿다

佛國消息通의見解

佛國政府는 西班牙叛亂에 對하야 嚴正中立을 지킬方針이나 外國이 叛軍에 武器를 供給하는때에는 一方的中立에 束縛될 必要는 업다고 思惟된다 佛國政府는 各國政府에 對하야 中立維持를 提言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滿足할回答에 接하게되면 西班牙內亂은 急速히 解決되는同時에 憂慮할 國際紛爭을 回避할수 잇스리라고 期待한다 佛國政府가 希望하는바는 各國에 承認되고잇는 西班牙의 合法的政府와 友好的關係를 持續할것과 西班牙의 秩序가 速히 回復되기를 바라는바이다

西國內亂圍繞코 國際情勢尖銳化

【巴里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의 推移를 注視하면서 行動의 自由를 留保하고잇는데 革命軍總司令 프랑코將軍이 모록코土民軍을 利用하는 事實을 根據로 더욱 干涉하리라고 觀測된다 即 巴里外交界에잇서서는 消息通인 에코·드·巴里紙의 外報局長 제로수氏는 二日 更佛國政府의 情報를 따옴과가티 報道하엿다 프랑코將軍은 土人으로 武裝케하야 飛行機로 西班牙本土로 輸送하고잇다 이 프랑코將軍의 行動은 一九一二年十月의 佛西兩國間에 成立된 條約違反이다 佛國政府側은 革命軍과 伊太利政府와의 關係에 對하야 重大不安을 示現하고잇다 그리고 條約을 방패로 人民戰線 政府擁護에 進出할 境遇에는 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 한 國際情勢는 더욱 尖銳化하리라고 觀測된다

英國海軍代表도 蘇聯特殊性承認

타스通信의英蘇海軍協定報道

【莫斯科一日發同盟】타스通信社는 英蘇海軍協定成立에 關하야 如左히 報道하엿다 去七月三十一日 倫敦에서 英國代表는 蘇聯海軍協定이 成立되엇다 英國代表는 蘇聯海軍의 特殊事情을 承認하고 蘇聯의 若干의 要求를 承諾하얏다 그러나 蘇聯側도 協定을 成立시킬 目的으로서 相當히 讓步하엿다 蘇聯의 特殊한 地理的位置及 內亂의結果 蘇聯海軍의 一部가 國外로 搬出되고 賣却된 事實에 關聯하야 條約文中 若干의 留保를 加할것을 提示하엿다 第一로 蘇聯政府는 海軍問題에 關하야 蘇聯政府와 日本政府間에 協定이 成立되기까지에는 極東의 海軍力을 條約에 依하야 拘束하는것은 不可能하다 但 極東의 他國이 海軍力을 規定된 限度以內에 둔다면 蘇聯政府가 建艦競爭을 開始할 意思가 업는것은 勿論이다 다음으로 蘇聯代表는 蘇聯의 地理的狀況과 그 特殊事情에 關聯하야 留保를 要請하얏는데 英國의 讓步로 蘇聯은 讓步의 絶對必要條件을 詳細히 檢討하는데 끗첫다 最後로 獨逸政府도 同樣의 條約에 調印하기를 要請하엿는데 獨逸도 亦是 同樣의 義務를 受理할 用意가 잇다고 밋는다

義務教育延長案 文部當局의主張 ③

第二、教育內容의 改善으로보아

一、年限二年延長으로 從來 尋小에서 國民教育上 必須事項으로 課한 教材로서 兒童의 理解에 不適한것은 이를 高小에 옴기고 重複한것은 避하야 그負擔을 輕하게해서 徹底한 理解와 自由應用에 指導하고 所謂 注入式教育을 一掃할수가잇다

二、高小에서는 國民的教養을 徹底히하야 立憲自治의 民인 素地를 培養하는同時에 特히 實業的教養에 致力하야 土地情況에 應하야、教材、教科書를 自由로 選擇按配할수잇도록해서 所謂 教育의 實際化를 圖할것이다 이趣旨에 基하야 教科書를 改訂하는同時에 教員의 資質向上의 方法을 講究하야서 이徹底를 期할수가잇다 이를 要컨대

가、國民精神涵養을 一層徹底케함

나、將來의 實生活에 對한 基礎的教養을 充分케함

다、公民的教養을 노피 國民參政의 諸制度로하여곰 有終의 美를 거두게함

라、智能을 向上하야 常識을 깁게하고 體育에 注意하야 體位向上을 圖하야서、國防能力을 強化하고 產業能力을 增進하야 家庭生活及 國民生活의 改善에 資할수잇게함

第三、國防及產業上으로보아 近時兵器의 進步는 자못 急激하야 모든近代科學의 精華를 다하엿다 이에 對해서는 于先 國民一般의 教養을 노피 國防에 關한 理解를 깁게하야 精神的國防能力을 增進하는同時에 最新兵器를 十分 運用할수잇슬만한 能力을 培養치안흐면안된다 또 近代產業의 經營으로 보건대 國民의 教養을 노피 生產能力의 增進에 資하지안흐면안된다 現在 就業者의 狀況을 보건대 적어도 高小卒業者가 아니면 基礎的教養이 不充分하다고하는것은 一般의 輿論으로 尋小卒業生을 採用치안는 會社工場이 漸次增加하려는 傾向이다

第四、教育의 機會均等으로보아 年限延長으로 就學을 强要할수 업는者의 大槪는 不遇로 貧한 青年前期의 教育을 바들수 업는者들이다 彼等에게 보다나흔 教養을 與하야 國民教育을 完成케 하는것은 國運進展의 基礎인 青年大衆의 教育을 普及하는 所以이며 또 不遇者에 對하야 教育의 機會를 均等케하는 所以이다

第五、世界各國의 實例로보아 世界大戰後 各國은모다 教育制度를 改革하야 國運發展의 基礎는 國民教育의 普及徹底에잇다고 먼저 義務教育의 內容을 改善하고 또 그年限을 延長하야 八年又는 九年으로하얏다 六年으로한者는 니카라과、에콰도르、에스토니아、파나마、芬蘭等의 小國이다 諸外國은 다시 補修教育의 義務制를 取하는者가 二三에 끗치지안코 또 義務教育의 年限은 다시 延長될 趨勢에잇서서 英國가튼나라는 九年으로부터 十年으로 延長하려고한다 그런데 國語의 學習이 困難한 日本에서 도로혀 六年制에 止하는것은 아모래도 不均衡이며 不可思議한일이다

第六、國民參政權으로보아 近來選擧肅正、棄權防止等이 絶叫되나 大體 現今의 大多數國民은 選擧權의 貴重한所以 選擧의 神聖한 理由等을 理解하고잇슬가 아니 理解할수잇슬만한 教養이 잇느냐 政黨의 政策乃至 候補者의 政見에 對하야 正當히 解釋을 할수잇느냐 特히 難澁한 字句를 使用한 公報等에 對해서는 大多數의 有權者는 거의 無關心하다고해도 조타 이래서는 肅選도 棄權防止도 效果는 稀薄하다 그런데 이는 國民一般의 教養을 노피는以外에 方途가 업슬것이다 年限延長은 其一이다

年限延長은 벌서 議論問題가 아니오 如何히 實行할가하는것이 問題이다 明治四十年 六個年에 延長한 當時에 八年으로할것을 豫期하엿다 大正十三年에는 案을 具體化하야 文政審議會에 諮하고 昭和十四年에는 이 準備로 師範制度를 改正하고 또 第四十六議會貴族院豫算總會에서는 「內外情勢에 鑑하야 國民教育을 充實함이 急務라고 思惟하고 政府는 速히 義務教育年限을 延長할 國策을 定하야 그制度를 設하기를 希望함」이란 希望決議를 하엿다

義務教育四年制를 實行한것은 明治三十三年으로 日清戰役後 國力進展의 機運에 乘한것이오 또 六年制를 斷行한것은 明治四十年으로 日露戰役後의 戰後經營으로한것이엇다 國運을 睹하야싸운 戰爭後에 國家進展은 國民教育充實에잇다고한 見解는 마치 世界戰爭後의 歐洲列强이 取한 國策 即 義務教育延長乃至補修教育充實과 符節을 合하는바가잇다 歐洲戰後 日本은 異常한 飛躍을하고 特히 滿洲事變以來 國際聯盟及 軍縮會議脫退를 敢行하야 國防、產業에잇서서 國際上 가장 優勝한 地位를 占하고 또 陪審法制定 普選의 實施等 國民의 權利가 顯著히 擴張된 今日에 國民的教養의 基礎인 義務教育年限延長이 已往二回의 勇斷에 反하야 三十年의 오랜동안 閑却되고잇는것은 遺憾千萬이다 그런데 이 義務年限延長을 斷行함에는 여러가지 點으로 생각하야 只今이 近來에 업는 第一조흔 機會이라는것을 痛感한다(完)

八面鋒

國防豫算은 政治的으로 解決을 圖하리라고。

◇

元來 조그만 數로는 三十億 五十億을 헤일수가 업는 일。

◇

電力國營案은 國家社會主義의 產物이라고 電氣業者가 遞信大臣을 攻擊。

◇

主義如何는 모르나 정말 國家와 社會를 爲하는 政策이라하면 누가 反對하리오。

◇

民政黨은 幹部會를 十日부터 또開催。五國會議를 [illegible]

◇

獨伊兩國이 參加할것을 英國이 깃버한다하나、정작 開會前의 實績을 보기前에 지레 拍手는 禁物。

英埃協定 一日假調印

【카이로一日發同盟】英埃兩國政府는 에쥬로수단統治에 關한 埃及政府의 要求擴大에 關하야 交涉中이던바 協定이 成立되어 一日 假調印을 了하엿다

이락石油船에 穿穴點火

아라비아人所爲?

【예루살렘一日發同盟】最近 이락石油會社 輸送管에 穿孔하야 噴出하는 石油에 點火한者가잇서 이때문에 요단河의 東側은 熔熔한 火炎에 凄然한 光景을 呈하야 一大事를 이르키게되엿는[illegible]

冀察外廓破壞에 蔣氏暗謀劃策

西南克服을契機로

【北平一日發同盟】南京政府의 北中中央化工作은 最近一段進捗하야 宋哲元氏의 一味로보이는 山東省主席韓復榘氏에 對하야 俄然손을펴게되엿는데 蔣介石氏의 腹心인 蔣伯誠氏는 蔣介石氏의 命으로 三十一日南京부터 濟南에 到着하야 또 馮玉祥氏의 直系인 石敬亭氏도 三十一日濟南에 赴하야 함께 韓復榘氏와 會見하엿는데 蔣、馮兩氏의 密使는 서로 前後하야 韓復榘氏를 訪問、무슨策動을 하고잇스며 宋哲元氏及 韓復榘氏가 西南事變에 際하야 中央에 接近한 態度를 取한 것이 多分히 反蔣的氣勢이엇슴을 理由로 西南을 克服한 今日 漸次 冀察及山東統一의 銳鋒을 轉하야 爲先 冀察의 外廓破壞方針으로서 韓復榘氏의 地位剝奪을 畫策하야 蔣介石氏의 部下인 孫桐萱氏를 山東省主席에 任命하고 此에 代하려고 暗暗히 韓氏에 因果를 包含한 工作을 開始하엿다고 傳한다 最近 漸次 積極化한 蔣介石氏의 冀察外廓破壞工作으로서 그 進行은 極히 重大視된다

內亂不干涉提案

佛、英外省에 手交

【倫敦二日發同盟】佛蘭西代理大使는 二日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西班牙內亂不干涉에 關한 佛國政府의 提案을 手交하얏다 右佛國政府의 提案은 一日午前의 國務會議의 決定에 基한것으로서 그要旨는 如左하다

一、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에 對하야 嚴正中立을 維持하는데 英國政府도 또한 同樣으로 不干涉을 [illegible]

人事·集會

◆宇垣總督 [illegible] 二日午後二時十五分 [illegible]

◆小城[illegible]新任人事 [illegible]

◆小塚秦一郎氏(京城中央[illegible])同上

◆[illegible]二時京城 [illegible] 出張八日午後十時三十五分[illegible]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 秘業
最新 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責任指導
本院卒業生內鮮各地無試驗開業資格
僅少의 資金과 短期修業으로 成功確實 醫師同樣의 尊敬과 生活의 安定을 得하라
不遠 內務省令으로 發表되며 一層 大發展의 醫術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規則送呈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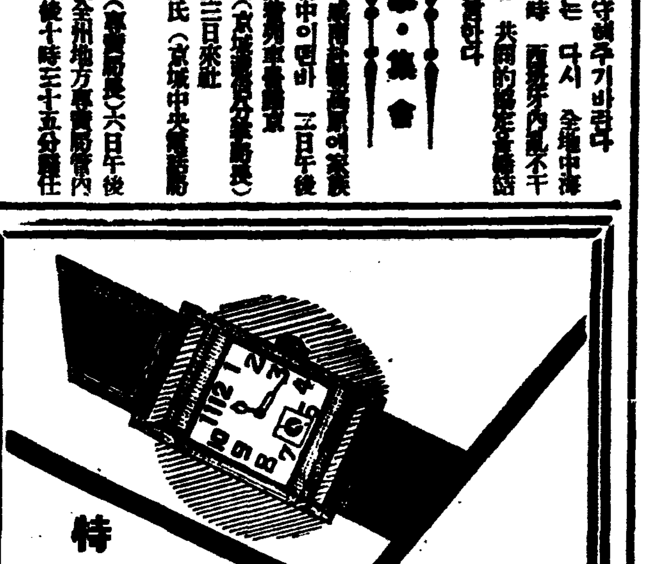
山羊
瑞西直輸入純粹 ザーネン 種分讓 牧場實習生優待
京城東小門外 明本山羊牧場

社員採用
中學及商業學校出身活動家로 將來有望하고 市內在住의 確實한 保證人이 有한 青年(二十五歲-三十歲)採用함 希望者는 自筆履歷書寫眞 便送 電話紹介 面談謝絕
京城鍾路三丁目 [illegible]藥堂製藥株式會社

朝報案內

醫專病院眼科指定
醫學堂眼鏡店
無料 檢眼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青年會館 電光二二八番

型錄進呈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地方注文은 代金引換으로 發送함
特選優良腕時計
流行品의 進品
側クローム製西藏 光夜入石寶五十
特賣値 ¥12.50
株式會社 京城本町 村木時計店 京城出張所

利益만흔
新職業
專屬取引者募集
利益만흔일은 아직 누구든지손대지안흔일을 第一몬저 始作하는데잇다、利益만흔일이라하면 벌서는 저 다、弊店에서 推奬하는일은 老若男女누구든지할수 잇는 쉬운일、그方法如何에따라서 百圓이고 利益을볼 수잇다、目욕有望하고失手업는일이다、山間僻地에 서라도 容易히되는것、製造販賣하면 莫大한 利益을보 게된다、只今곳 始作하야만흔 利益을보려고하는분은 곳 申込하라、詳細案內書進呈함
京城府竹添町三丁目
申込所 福住商店京城支店
本店 大阪市天滿岩井町龍東通角 電話光③一九二四番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医學博士 鄭求忠
電話 光化門六八五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各種信托 迅速有利
低利貸出
京城南大門通二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會員名簿作成配付爲計其八月二十日限左記事項無漏通知爲要
一、現住所職業新舊名及卒業回數
八月 日 鏡城公普同窓會白
同窓會員 各位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金銀賣買合資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振替京城一三八〇番

習慣에 不便업고 中毒업다
下虫劑
マクニン
잘 듯고 먹기 쉽다

◇…釜山市內水害畫報 ‖釜山支局員撮影‖ 上은 榮町一帶의浸水 下는 瀛州町入口의道路가 毁損되여 電車不通

破壞된電車路放置 釜山榮町에浸水!

修繕을申請햇스나府當局의無誠意라고 府民의怨聲이頗高

【釜山】 지난칠일 삼십일일밤의 폭우로 인하야 부내영정(榮町) 방면의상점 약륙십호가 침수되고 하수도상의 아스팔트 도로가약백평이나 파괴되여 솟아올라 임시전차까지 불통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원인은지난번장마에 토사가 류출되여하수도가 페색되여잇슴으로 영주정방면주민이 부당국에 대하야 수리하여달라는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임하엿슴으로 이와가티 피해를 입게되것이라하야 부당국의 무성의한처치에 비난이 자못놉다한다

하룻밤동안의暴雨로 水國化한金海邑

一朝一夕에衣食住를流失한數千住民 時日따라被害도續續判明

【金海】 지보=작사삼일밤부터 나리게된 비는 팔월일일 새벽부터 더욱히 폭우로 뭇칫여서 아침 여덜시반까지 나리여물과 하로밤 사이에이백십삼미리나 놀나운 수자를 보게되여 하로밤 사이에 김해천지는 수국으로화하고마럿다 김해읍에는 호계천(虎溪川) 방천이 곳곳이 끈허젓스며 시내동상동(東上洞)내방채도 끈허지며 당복리내봉도범람되고 하수구도 범람되여 시내각상점에까지 침수는 물론 류실,전괴,반괴(流失,全潰,半潰)가 십여채나되여 더욱히 김해읍마리(馬鹿里)에는 동내뒤 산골작물이 동내를 나와려 이십여호나 전부류실되엿스며 갑작히나리는물에도궤되는집에 치이여죽은사람만이 십칠명이나되여 부상자구명 아직도가곳을 모르는사람도 십명이나되는바 김해경찰서원 읍사무원 군청원 소방조의 각단체는 즉시현장에 출동하야 업는사람을찾는일방 구호에착수하엿다 일조에 가족을 일헛스며 사람이 살고는 떠나지못할 의식주(衣食住)상대요소를 물에다가 무참하게도 떠나려보내고 엇지할바를물으고 동민전부가 서로서로붓들고 울며 떠드는광경은 보는사람으로서 눈물과 떨이는 가삼을못견딜수업는 비참한 일이다 군중의 우룽소래와 나려가는 물소리는 산천이 다가티 슬퍼한듯하다 장유 생림 양면 김해군 장유면에는 무계리(茂溪里)압 대청천(大晴川)이 사십메ー터나 끈허지자 닥치는물에 개시장일대는 전부 침수되고 유실오호, 전개오호를 내여 일시는 대혼돈되엿는바 장유면 직원으로부터 각단체를 출동하야 작일일에 리재민오백명 가량을 장유보통학교에 수용하여다가 오날부터는 물이빠지게됨을 따라 이재민을 열두해산하고 잇다한다 군내 생림면에 상세한 보고를 접한데의하면 다음과갓다한다

生林面被害
死者 一名 全潰 二戶
流失家屋 一戶 床上浸水 一九戶 道路破損 一五〇米 堤防 一八個所

(사진은 원남동불탄현장)

今曉、苑南町에出火、二棟九戶를燒失

致誠壇의초불이引火된듯? 八十老婆마침내慘死

사흘날 오전두시이십분 시내 원남정(苑南町) 백이십륙번지 황치운(黃致雲)(五〇)의집방에서 불이 나서 출동한 사십여명 소방수의 필사적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와집두채에 아홉세대를 다태우고 동세시반에 겨우진화되엿는데 불과장안에서 어의동보통학교(於義洞普校)에다니는 자남(慈男)(九)이란 손녀와 태학(泰鶴)(八)이란 증손자를 다리고자든 전긔황의어머니 김씨(金氏)(八一)는 자다가 연긔가름시남으로 깜작놀나깨여보니 벌서집안이 불바다가되엿슴으로 끈히자고잇든 전긔두아해들은깨여 박그로내여보내서 무사하엿스나 자긔는 원체노체라 뛰여나올려다가 모기장에 걸여쓰러저 그만무참히도 무심한불길의 희생이되여버렷스며 손해는 사천원가량이고 원인은 이집이절네집이라치성단에다 켜노앗든초人불이쓰러저서 인화된듯하다。 그리고 전긔 황의 부처는 북한산(北漢山)쪽으로 버리간동안에 이와가티 참변이 난것으로 부모도업는 동안에 사랑하는 할머니를 이른 전긔 두아이들이 공포심에싸혀 떨고잇는모양은부근사람들의동정을자아내고잇다。

下南水組堤防決潰 四十町步水國化

被害程度는아직未詳

【守山】 지난칠일밤부터 내리기시작한비는 밤사이에 소낙비가 말할수업시 퍼부어서 도처가 수국화되엿다 밀양군하남수조량동재방(下南水組良洞堤防)이 팔일오전아홉시경에 외산방면(外山方面)으로 치밀려오는물에 터지자 이광경을 본 근처사람들이 전긔수리조합에급보하야 당국에서는 가마니수백장과 인부수백명을동원식히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터진곳을 막기에 잇는힘을 다하엿스나 때는 이미느젓스므로 한등의효과를 내지못하엿다고한다 손해정도의 상세한수자는 알수업스나 손해는 상당한 모양이라 하며 목하사십여정보의 큰들이침수한나 만논은 수국화되고말앗섯다 이근처사람들은 큰심거정에차혀잇다고한다

倭館과新洞間 京釜本線不通

【倭館】 련일 일기가 무덥드니 삼십일일아침부터비가오기시작하여 종일비가오드니 밤중에는호우가오기시작하여 경부선 왜관신동양역간은 철도에 고장이생겨서 렬차의통과 수시간의연착을하며 렬차가왜관역에 중지하든승객은 대혼잡을이러켜 막대한불편을주엇다고한다

五十年來大洪水 梁山水害의詳報

【梁山】 재작일의 대홍수로 량산지방에서는 오십년래의 처음가는 대홍수를 일우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 그 피해의 상세조사한것은 다음과갓다

一、북정(北亭)리에서는 뒤人산이 문허저서 가옥류실(家屋流失)이 륙호, 인명사망(死亡)이 이인, 경상(輕傷)이 이인

二、신긔제방결궤(新基堤防決潰)이 이십장으로 전답피해백정보

三、원동면(院洞面)에서는 인가류실(人家流失)륙호, 전괴반괴(全壞半壞)시구호, 침수가옥(浸水家屋)이십호, 전답매몰(田畓埋沒)이백드락

四、수리조합(水利組合)구역내침수전답 이백정보

五、물금(勿禁) 원동(院洞)량역사이의 궤봉이 삼개소

負傷者四十一名에 死亡者二十四名

二日午後까지警務局에到着한 慶南道管內의被害

【警務局着電】 금번남조선일대의 수해중 제일피해가만햇든 경남도내의피해에 대하야 이일오후까지의 피해를개톨보면 ▲인명피해만사망자 이십사명 부상자 사십일명 행방불명 구명(그중세명은 시체발견)으로 합계칠십사명이고 ▲도로피해는 문허진곳이 삼십개소▲가옥의피해는 류실이십구호 도괴십륙호 침수오백십오호 합계오백륙십호이고▲철도훼손이 진곳이오개소등이다

青酸加里使用 創始者에死刑

【東京電話同盟】 작년십일월이십일일 동경 천초뢰문(東京淺草雷門)압헤잇는 명치제과(明治製菓)『홀』에서 자긔선생인 천초류북(淺草柳北)소학교장 증자국희(增子菊喜)를 독약 청산가리(靑酸加里)로 독살하고 교원에게 나누어줄 봉급삼천여원을 강탈하야 소위「청산가리자살시대」를 나타나게한 도살마(魔) 제야주무의(鵜野洲武義)(二二)는 일이심에서 모다 사형판결을 밧고 불복상고중이든바 삼일오전십일시 대심원(大審院)에서 천이(泉二)재판장은 상고기각판결을 내리여 드듸여 사형이 확정되엿다

官公吏의不正行爲 民衆의信賴를沮害

思想의不健全과綱紀의紊亂이主要原因 京畿道郡守會議에서論難

경긔도군수회의(郡守會議)는삼일부터 사흘동안예정으로 경기도회의실에서 개최중인데 개회벽두에 안정(安井)지사는 농촌문제와 초등교육문제와 사회시설문제등 여러가지 행정시설에대한 장황한 훈시를하고 마즈막으로 특별히 강기숙정(綱紀肅正)에 대해서는 긔회가 잇슬때마다 늘 주의를 시켜왓스나 지금도아직 부정비행사건이 각처에 발생하야 관공리(官公吏)의위신을 떠러치고잇는것은 참으로유감으로 녀기는바로 대개이런일은 불건전한사상과강긔가 물러젓스므로말미아마 생기는것으로민중으로하여금 관공리에게대한 신리를바라하게하야 모든시정의 효과를감소시키는 한가지큰원인이되는것인즉 부하직원의감독을엄중히 하도록하라는 주의를시켯다

牧師아들로 殺人未遂罪

목사의아들이 방탕한 매부를 충고하다가 극도로흥분하야 칼로그매부를 찔러서 결국살인미수죄로 취조를밧게된사건=지난이일오전 여덜시반경에 시내내수정(內需町)칠십번지의구호 김상한(金相漢)(二七)의집에 그의처남인 시내종로(鍾路)륙정목 이백십번지의십팔호 유일선(柳一宣)(二一)이가 차저가서 목사의아들 유의탁(柳義卓)의 충경을하다가결국 가지고잇든 기리네치가량의단도로 매부의머리와 얼골과등을찔러 중상을 입혓는데 피해자는 의전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가해자는 소관종로서에 류치되여 살인미수죄(殺人未遂罪)로 방금엄중한 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이제 이칼부림이 이러난원인을 아러보건대 전긔

西部京城攪亂者 強盜三名을今日送局

西大門署서取調를마치고

불과사십여일간에 중국인농가를 전문으로 세군데나 습격하야서 부령선인대를 공포에떨게하든 삼인조의 상인(商人)강도사건은 일나칠월이십일과 이십일일에주범 전종식(全鍾植)등세명이 전부서대문서에 체포되엿슴으로 그동안 엄중한 취조를계속한동 사일오전아홉시에 강도미수 강도 도상인이라는죄명으로 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국되엿다

▲……▲
玉仁町三番地의一號 全鍾植(三二)
上道町四四 全自斤龍(二〇)
高陽郡恩平面平倉里二六〇 金明順(一名點龍)(二七)

測量寫眞特別講習 各科十五日速成 七月十五日開講隨時編入 奉天小西邊門裡 滿洲測量學院

二北面도水國化

浸水面積 五〇〇町步 埋沒 五町

【釜山支局特電】 경남김해군이북면(二北面)일대는 수국화하야 배전괴되여 륙십채가옥이 이호이며 침수가 삼십호이다 그런데 리재민은이북면당국에서 구제중이며 비는 계속하야 오고잇슴으로 인심은 극도로 불안한중에 잇다한다

滿員謝禮
名優 黃眞伊 四幕五場
송도의세가지자량거리중의하나인『명기황진이』의이아기를연극으로상연하기는이번이처음으로써과연비상히긴긔를끌고잇습니다아제도만원그제도만원으로못처럼오섯다가못보시고도라가신손님에게는실로최송하기끗이업습니다갑히량해하시고아모조록개막시간전에일죽이와주시기바라읍니다……(晝夜二回上演)
青春座公演中 東洋劇場 電光二二五四

日曜日의交通事故 하로에三件連發

主役者는自動車와自轉車

일요일에 이곳 저곳에서 이러난 거리의 사고—

▲이일 오후 여덜시이십분에 동대문밧 신마장정(新馬場町)칠백이번지압 큰길에서 부내종암정(鍾岩町)이십구번지 채소장사 안만원(安萬源)(二〇)은 동대문쪽에서 청량리(淸凉里)쪽으로 가는 청량리시 운전수 김병찬(金炳贊)(三五)이 운전해 가든경기도 제구천일백팔십칠호 자동차에바치여 안면에 열흘동안 치료바들 상처를 내엿다 피해자 안만원은 자전거를타고 청량리쪽으로부터 동대문쪽으로 가든중의편길에서 올흔편길로 건느려다가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이일 오후 세시사십분에서내 산수정(山手町) 구십팔번지 마차부 최상인(崔相仁)(三九)와 시내 한강통(漢江通)사집오번지한 강탁시 신축장아메서 경성우편국운전수 송전정부(松田貞夫)(三七)가 운전하야 남대문쪽으로 가든 경기도 제삼천이백구십사호자동차에 바치여 올흔편발목이 부러젓다 피해자가마차를 이끌고 큰길로 나가든지음에 전차길을 피하야 질주하든자동차에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이일오후 세시사십분에 시내관수정(觀水町)사십일번지의이호 서영식(徐榮植)의장녀 흥안(興安)(七)이라는 아이는 시내종로이정목 오십이번지길에 시내삼각정(三角町)일백삼번지 자동차운전수 김준환(金俊煥)이가 운전해가든 강원도삼백삼십구호화물자동차에 바치여 왼편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와손가락에 상처를내엿는데 약일개월동안치료바들 중상이라한다 자동차가 동대문쪽에서 종로

鳳翼町에女兒遺棄

이일 오후열한시반경에 시내봉익정(鳳翼町)오십칠번지 김상룡(金相龍)의 집대문압해 흰보재기로 싼 나흔지 두주일밧게안되는 녀아를 어떤자가 버려두고 간것을 그집주인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계출하여왓슴으로 그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찻고 잇는중이다

仁旺山에縊死屍

삼일 오전열한시경에 시내 인왕산(仁旺山)중턱에잇는 국사당바위엽 솔나무에 나히삼십세가량되는 조선녀자한명이 목을매여죽어잇는것을 등산자가 발견하고 시내종로서에 계출하여왓슴으로 경찰에서는 방금 그주소성명과 죽지안하면 안될사정등을 조사중이다

天氣豫報

概況 南中國에잇는 颱風은 詳細한것은 不明이나 中心示度는 七四미리가량으로 北進하고잇는데 或은北東으로 方向이 變할지도 몰은다 高氣壓은 小笠原島에七六一미리의것이잇고 朝鮮東岸及日本海에도 多少氣壓이놉다 滿洲는晴朝鮮은曇 日本內地는曇處處에비가오다 颱風은漸次朝鮮에接近하고잇슴으로 日氣는漸次납버간다

豫報 京城은 今夜北東風曇 明日은 北東風後雨 全鮮同

昨日	最高	二七、六
同	最低	二一、一
今朝	最低	二〇、四
今日	正午	二三、八

寫眞은 中等陸上에優勝한 養正軍

十萬觀衆歡呼裡 陸上競技遂開幕

吉岡以下日本短距離陣全部落選 世界新記錄續續作成

【伯林스타디옴二日同盟特派員發】 世界올림픽大會第二日은 競技開始의 날이다 定刻인 午前十時에 開門하자 물밀듯이 밀려드는 十萬의 大觀衆은 奔流와가티 스타디옴에 몰려드러 立錐의餘地업시 觀衆을 이루운 가운데 열린바 이날의 競技는 다음과갓다

【萬米決勝】 1살미ー넨(芬)三〇分二二秒四 2아스코라(芬)三〇分一五秒六 3이소호로(芬)三〇分二〇秒二 4村社(日)

【投砲丸決勝】 1헤ー른트(芬)一六米二〇(올림픽新記錄) 2벨세(獨)一五米九六 3드래크(獨)一五米五六 4프렌시스(米)一五米四五 5로란스(米)一五米三六 6자이스(米)一五米三二

【女子槍投決勝】 1헤리ー프라이셀(獨)四五米一八(올림픽及世界新記錄) 2루이제·크류ー겔(獨)四三米二九 3카지스프슈카(波)四一米八〇 4하우마(墺)四一米六六 5山本定子(日)四一米四五 6에벨할드(獨)四一米

【走高跳決勝】 1존손(米)二米〇三 2알브리톤(米) 3시ー바ー(米) 4코드카스(芬)二米(以上올림픽新記錄) 5八田(日)一米九七 6朝隈(日)一米九四 田中(日) 와이겡즈(獨) 카리야(芬)

【百米第一豫選】▲一組 1스토라ー벨그(瑞典)一〇秒七 2吉岡(日)一〇秒八 ▲二組 1벨걸(和蘭)一〇秒八 2먼나헐(南阿)一〇秒一 ▲六組 1토이나센(瑞典)一〇秒七 2호헬벨겔(獨) ▲七組 1메트칼프(米)一〇秒八 2니기ー르(匈)一〇秒八 ▲八組 1뮬히마이아(獨)一〇秒七 2휴벨(加)一〇秒八 ▲九組 1와이콤(米)一〇秒六 2스네이니ー(英)一〇秒七 ▲十組 1옷센달프(和)一〇秒五 2베넷트(英)一〇秒六 ▲十一組 1헨니ー(瑞西)一〇秒七 2풀스(英)一〇秒八 ▲十二組 1오웬스(米)一〇秒三(올림픽及世界타이記錄) 2佐佐木(日)一一秒 ▲四組 데베렐(和)一〇秒八 2크린벡크(南阿)一〇秒九 ▲五組 마크페(加)一〇秒八 2리데그렌(瑞西)一〇秒八 ▲三組 1키ー네스(匈)一〇秒七 2鈴木(日)一〇秒七

【百米第二豫選】▲第一組 1호르볼롯(獨)一〇秒五 2옷센달프(和)一〇秒六 3와이콤(米)一〇秒六 ▲第二組 오웬스(米)一〇秒二(올림픽及世界新記錄) 2헨리ー(瑞西)一〇秒七 3니기ー르(匈)一〇秒七 4吉岡(日)落選 ▲第三組 1메트칼프(米)一〇秒五 2베니톤(英)一〇秒六 3반베렌(和)一〇秒七 6佐佐木(日)落選 ▲第四組 1뮬히마이열(獨)一〇秒五 2마네이니ー(英)一〇秒六 3매크페(加) 4鈴木(日)落選

【八百米第一豫選】▲第一組 1에드와ー드(加)一分五三秒七 2혼보스텔(米)一分五四秒三 3벨렐트(白)一分五四秒三 4데메스파레(匈) ▲第二組 1월리암스(米)一分五六秒 2콘웨이(加)一分五六秒 3부ー드(新西蘭)一分五六秒 4슈ー브(墺)一分五七秒三 ▲第三組 1마케이브(英)一分五四秒五 2베데(芬)一分五四秒九 3요하넷센(諾)一分五六秒一 6富江(日)落選 ▲第四組 1바크하후스(獨)一分五七秒七 2사로(佛) 3웃드라프(米)一分五七秒八 4한드레ー(英)一分五八秒七 ▲第五組 1베우루(英)一分五八秒九 2라완즈이(伊)一分五六秒 3아이르베르룩(獨)一分五六秒三 4바라스(匈)一分五六秒五 ▲第六組 안더ー손(瑞典)一分五五秒一 2크차르스아ー(波)一分五五秒七 3메스(獨)一分五六秒 4크루에(佛)一分五六秒 6靑地(日)落選

◇各國得點表

	萬米	走高	砲丸	計
芬蘭	一五	三、五	五	二三、五
米國	〇	一五	六	二一
獨逸	〇	〇、五	一〇	一〇、五
日本	三	二、五	〇	五、五
英國	二	〇	〇	二
[illegible]	一	〇	〇	一

養正連三年制霸

트랙部엔寧邊崇德軍이首位 中等校陸上競技閉幕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中等校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第二日은 二日午後一時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續開된바 全種目中의棒高跳、投砲丸、投槍、百米、四百米、四百米繼走等의 六種目의 朝鮮中等校新記錄과 二百米、四百米、五千米、三段跳、千六百米繼走等五種目의 大會新記錄을 作成하엿는데 結局은 트랙部는 四十七點의 寧邊崇德學校가 優勝하엿고 필드部에는 四八點半으로 養正高普가優勝하야 總得點에서 八一點五로養正高普가 連三年制霸하엿다

【八百米決勝】 1許學洙(崇德)二分六秒九 2洪顯文(一高)二分七秒四‖以上大會新記錄‖3尹光鎬(平農) 4李種禾(海高) 5趙明勳(培材) 6牧(龍中)

【五千米決勝】 1李鍾錄(培材)一六分五三秒 2金鍾植(養正)一六分五九秒二 3吳昌濟(崇德)一七分五秒四‖以上大會新記錄‖4尹光鎬(平農) 5劉寬興(培材) 6金淋鎬(二高)

【四百米繼走決勝】 1養正軍(馬鍾國 韓仲範 李景義 金克煥)四四秒九(學生新記錄) 2培材軍(印庚煥 林基洙 李東興 金裕澤)四五秒五(學生타이記錄) 3海高軍 4崇德軍 5京師軍 6平高軍

【千六百米繼走決勝】 1崇德軍(宋壽鳳、裵瑗煥、許學洙、李常榮)三分四一秒二(大會新記錄) 2培材軍三分四三秒四 3龍中軍三分四四秒八 4平高軍 5養正軍 6道商

【投槍決勝】 1印庚煥(培材)四五米二五 2白承旭(養正)四四米五五‖以上學生新記錄‖3張聖壽(養正)三五米八〇(大會新記錄) 4朴基洙(培材)三三米五〇 5馬鍾國(養正)三三米四一 6金大基(京師)二六米九三

【走高跳決勝】 1崔禹榮(海高)一米六六 2辻(大田中) 3羅絅成(光成)一米六五 4張聖壽(養正) 北野(京工) 橋本(羅中) 蘇鎭南(一高)以上一米六〇

【投槍決勝】 1大井(龍中)四四米一八 2敦澤(羅中)四三米八一 3馬鍾國(養正)四三米二七 4姜正善(徽文)四一米六六 5張聖壽(養正)四一米九五 6朴炳鮮(全高)四〇米五七

【三段跳決勝】 1金源權(海高)一三米〇四 2羅絅成(光成)一三米〇四 3裵瑗煥(崇德)一三米〇一‖以上大會新記錄‖4朴大根(全高)一二米〇二 5朴勳緖(仁商)一二米七六 6金時璜(培材)一二米四七

【高障碍決勝】 1蘇鎭南(一高)一七秒二 2平野(京師)一七秒四‖以上參考記錄‖3崔禹榮(海高) 4朴勳緖(仁商) 5阪谷(仁商) 6別府(道商)

【二百米決勝】 1金裕澤(培材)二三秒九(大會타이記錄) 2宋壽鳳(崇德) 3李景義(養正) 4金克煥(養正) 5內田(龍中) 6文顯柱(平農)

◇得點順位

	트랙	필드	計
養正高普	三三	四八、五	八一、五點
崇德高普	四七	八	五五、〇點
培材高普	三九	二	四一、〇點
海州高普	二九	六	三五、〇點
第一高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商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農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成高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山中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師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二高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高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工業	五	[illegible]	[illegible]
羅南中學	五	[illegible]	[illegible]
徽文高普	〇	六	六、〇點
光州中學	〇	五	五、〇點

	트랙	필드	計
大田中學	〇	四、五	四、五點
全州高普	〇	四	四、〇點
群山中學	二	〇	二、〇點
京畿商業	二	〇	二、〇點
釜山中學	〇	一	一、〇點

京商、公州高普、晉州高普、春川高普、義州農業、鏡城高普、同農業、京城中學以上〇點

籠球代表連勝 對秘露練習試合

【伯林卅一日發】 籠球代表團은 張利鎬等 … 에 伯林에서 秘露代表團과 練習試合을 行한바 結局 四十二對三十으로 大勝하엿다。 그리고 이날 米國代表對中國代表와의 練習試合은 二十七對十六으로 米國軍이 快勝하엿다

代表 42 (24 18 … 14 16) 30 秘露
米國代表 27 … 16 中國代表

門鐵7A 名古屋3

【東京電話同盟】 都市對抗野球第二日 不戰一勝의 全名古屋對門司鐵道戰은 二日午後四時부터全名古屋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 七A對三으로 門鐵勝

◇投捕‖(全名古屋)酒井—木村 (門鐵)豊田—菅

全名 010100001
門鐵 000300022A
7A…3

英艦蹴球팀 全京城과一戰

朝鮮蹴球協會主催의 英國艦隊蹴球팀對全京城팀 歡迎戰은 明四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同英國艦隊軍은 香港에서 華南팀과 對戰하야 三對三으로 善戰한 豪勇팀인만큼 全京城選拔팀과의 一戰은 一大接戰을 演할것으로 期待된다 그리고 當日會員券은 一般三十錢學生二十錢이라고한다

日伊陸上對抗戰

【伯林二日發同盟】 日本陸上代表部는 올림픽大會終了後인 八月廿九、三十兩日間 伊太利『로ー마』에서 日伊對抗戰을 擧行하기로 되엿다

올림픽·레스링第一日

【伯林스타디옴一日發同盟】 레스링·푸리ー스타일競技는 獨逸會館에서行한바 戰績은다음과갓다

【헤비ー級】 하르트(英) 判定 園波(日)
【미들ー級】 水谷(日) 判定 스히헐(瑞西)
【라이트級】 風間(日)…누ー코거…헐데(瑞工)
【웰터ー級】 폭스(英) 判定 增富(日)

普專과養正러비 仁川서合宿練習

【仁川】 普專럭비部一行十七名과 養正軍二十名이 來仁合宿하야 仁中校庭에서 李榮璨氏指導下에 連日猛練習中이라는데 普專은 山根町天一驛前金東勳氏宅에留하고 養正高普軍은 內里第一旅館에投宿하고잇다한다

特長
一、땀、기름、티끌이깨끗이씨서지고
二、白粉먹는데는絶對優秀
三、그대로살결의榮養이된다
洗顔과榮養의二重効果를兼한獨特한整肌料！

レート コールド クレーム

極く少量のマッサージにて効果充分です

特長
一、벗꺼름을防止하고
二、부름、잔주룸을解消
三、아름다운若肌를만든다
粉白粉下地에는絶對的인評判의近代美肌料！

レートクレーム

サラつとお肌に溶け込みつけ心地爽快！

特長
一、잘먹고잘핀다
二、땀에밀리지안코오래간다
三、色과香氣는近代的이다
朝鮮女性의살결에잘調和하는原料嚴選의優良品！

レート水粉白粉

黃色・濃肌色・オークル・白色・粉各色二五錢・水各色三〇錢

特長
一、아숨은아버지의面刀后에
一、나제는어머니의丹粧으로
三、밤에는언니의美化粧으로
一瓶으로 一家에서愛用 모ー도가 아름다워지는 美白料！

レートフード

新しい近代色・肌色・白色の二種あり

特長
一、진하게나엷게나마음대로
二、濃淡업시아름답게
三、오래가서衣服을더럽히지안는다
傳統朝鮮의 그윽한 衿化粧에 빗나는 絢爛華麗의 化粧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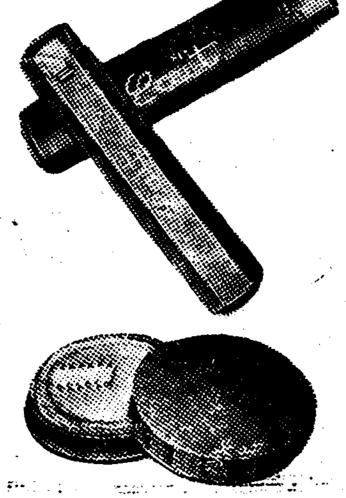
レート固煉白粉

白色・乳色の二種

特長
一、化粧에 익지안흔 살결에도잘먹고
二、크림과白粉이同時作用
三、一品으로一分에아름답게
女學生도 多忙한 職業婦人도 必需의 스피ー드 整容料！

レートメリー

肌色・オークル・白色・黃色各三十錢(新裝)



特長
一、그윽한靑春色의연지
二、純情可憐한입술연지
三、鮮麗한色의眉墨
洗鍊된技術工程에創造되는整容料！

レート頰紅・口紅・眉墨

(頰紅)オレンヂ色・ローズ色　(口紅)オレンヂ色

化粧料는 年齡、服裝、個性等의微妙한差異로 自己에게 꼭調和하는 優秀한 良心的製品의 選擇이 絶對로 必要합니다.

레ー도의各化粧料는 卓越優秀完璧無類의逸品을具備하엿스므로、당신의참된 美를完全히 發揮함에 不可缺한 理想的 必需品입니다！

オール近代女性に捧ぐ！

レート化粧料

東京・平尾賛平商店

家庭

구미다듬

과실과야채로 고와질수잇다

×××××요새좀흔합니다 마음껏써보십시요×××××

미용의근본은 건강에잇습니다. 아모리 얼골의 윤곽이 엡부니 살결이 고으니 해도 몸약한사람의미(美)라는것은 도저히 진정한미로 볼수업습니다 폐병환자에게 볼수잇는 호리호리하고 갸얄픈 미보다는 살이찔만큼 쪄서 오동통하고 언제든지 신선한듯한피비치 살에내보이고 건강에서오는 명랑한 우슴과샛별가튼 눈초리 거룩불거를때는 금방나올듯이기운잇서보이는이러한미래야합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이 미인되시려면 첫재건강체가되서야하고 화장이니 뭐니하는 그것은 아주 맨나종문제에 속한것입니다

◇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충분히 잠을자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할뿐더러 음식물에잇서서 신선한 과실과 야채를 섭취해야합니다 다행히 요새는 맛잇는과실과 싱싱한 야채가 한창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잡수시거에 여간편하시지 안흘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과와 야채를 마음껏잡수실뿐만아니라 이러한 실과와 야채를 잘울내어 살에발르면 이것이 훌륭한화장수가 되여 살결을 또한 곱게 희게 할수잇스므로 이래저래 다 조흔실과입니다 실과와 야채가운데는『비타민·씨』가 포함되여 잇기때문에 피부를 곱게하고 희게하는 효과가 드러나는것은 벌서부터 증명되여잇습니다

포도를 두서너알 껍질을벗겨『까-제』에 싸서 세수한뒤끄테 얼골을 톡톡토치드시 문질러 보십시요 포도액은 살에 배어 적당한 자극을 주기때문에『맛사-지』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나게합니다

수박은 하얀살의부분으로 얼골의근육을따라 코를중심으로하고 바갓쪽으로 마찰을해가면 땀띄가 나던거나 살결이 꺼칠꺼칠해지는일이 업습니다

엇잿든 실과집으로 이상과가티 하실때는 약실분동안하시고 그뒤는 맑은물로 씨서버리실것과 과실은 언제든지 신선한것을 쓰서야합니다

그리고『토마토』『나레몬』는도 칼로 쪼개어 얼골에 비비면 매우 조흡니다만 피부가 약한분에게는 자극이 너무 강한수가 잇스니까 자기의 피부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먼저 생각해보다음에 하실것입니다

오이의집은 그대로 쓰서도 훌륭한 화장수가 될수잇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주의하실것은 이러한실과야채의 집이 웬만한 화장수보다낫다고해서 함부로 오래문지르시거나하면 도리혀 무엇이 돋는수가 잇스즉 미인도금방 되실양심불마시고 하로에 조곰식 조곰식 여러날을두고하시면 어느틈에 고와지는지모르게고와지는것입니다

천하를 반에잘러 수박당과 참외당

당신은어느편에가담하십니까 ◇…몬저고르는법부터

참외를 먹고 시퍼서 내릉을 기다리시는 분이 잇도록 우리네는 참외를 조하하고 잇습니다。어떤 외국사람이 말과가티 조선서 참외를 밥이나 면보처럼 끼니로 먹는지는 몰라도 사실로 유난스럽게 잘 먹고 만히 먹는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수효는 적은편이로되 참외당과 대립하야 수박당이 엄연히 존재하야 잇습니다。그 분네의 말을 듯건댄 달고 시원한 맛으로 수박은 참외에다가 댈 것도 아니요 또 보기에 점잔흔 품도 수박은 참외에다가 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지금 거리거리에는 참외와 수박장사가 길을 막아 다니기 어려울 지경입니다。과연 우리네는 그 두가지를 특별히 조하하는것만 사실입니다

(참 외)

참외는 본래 인도지방(印度地方)에서 나는 것입니다 일쪽이 애집트로 건너가서 서양으로 퍼지고 또 천평 중국으로 들어 와서 일본내지며 조선이며 모다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종류에는 가지각색이 만허서 예날 조선서만도 먹사과 백사과등의 여러가지가 잇든데 지금은 더구나 개고리참외 왜참외등의 개량종이 생기어서 더 만허 젓습니다。세상의 변천이 참외에까지도 미치엇든지 그전부터 잇튼 오든 먹사과 백사과는 차저 내기가 힘들고 나오는니 모도 개량종뿐이랍니다 그런데 어떤것이 제일 잘익은 것인지 그것을 아십니까? 공연히 생참외를 사다노코 설화를 하서서야쓰겟습니까。

(一) 빗갈도 각각이지만 제빗갈대로 진한것이 조흡니다。

(二) 보기에 싱싱하되 마르러서 향긔가 물신 나는것이 조흡니다。

(三) 꼭지가 억지로 떨어지지안코 말러 떠러진것이 조흡니다。

(四) 손들어서 속히 흔들리지안하여야 조흡니다。

(五) 들어보아서 무거운것이 조흡니다。

(六) 형제가 밧못하고 둥이가지진것이 조흡니다。

참외를 벗기어서 동그라케 고리처럼 조개어 놋는 것보담 길게 쪽쪽조개어 놋는것이 보기조흡니다 어떠케 조개어먹든지 씨는 말끔히 발려버려야 합니다。

(수 박)

수박은 본래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서 나서 오래 전부터애지프트에서 재배하든것입니다 참외와는 뒤쪽으로 애지프트에서 인도로 넘어온뒤 동양각국으로 전파하게된것입니다。그러시 종류가 만습니다。빗갈만도 다홍 분홍 누런이 허영이의 네가지가 잇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서 경기도 양근땅의 룡문산(龍門山)수박과 전라도 광주땅의 무등산(無等山)수박으로치든것입니다。그중에도 무등산 수박은 거의항아리만큼 크고 또 맛도 달고 시원해서 그먼데스 서울 상감님께 진상하든 것입니다。그런데 만일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중로에 썩히어버리는 날이면 운반하든사람들이 큰일이 납니다。그래서 배스속에다가 멍울체 흙두둑째 옮기어 심어서의 하야 가지고 수로로 오느라고 해마다 죽을 욕을보앗더랍니다

(一) 꼭지리의 현집이 크거나 꺼질이 깨끗하거든은 연하지를 안습니다。

(二) 꺼질의 구령이 심히 진 것은꺼질이두껍습니다。

(三) 거죽으로 울퉁불퉁하게 되것은 속이 차지못한니다

(四) 들어 보아서 무거운 것이 그러시 잘 익은 것입니다。

(五) 꼭지가 짧은 것은 원둥에서 연 것이요 꼭지가 긴 것은 끄트머리에서 연 것인데 나종연것보담 원저스것이 낫습니다。

수박은 함부로 쪼개서 글먹는 것보담 우로 사분지일을 도려내고 살을 파내서 소주와 사탕을 조금 타서 먹는 것이 조흡니다。그 낭조개서 먹을 때는 설탕을 찍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잘못은 생겻슬망정 호박도 고를탓

이왕 참외와 오이를 고르는 법을 이야기한김이니 호박고르는법도 말슴하지요 호박은 아모런것이나、다 마찬가지로 아지요만은 그것은 아조 오해올씨다。

(一) 한 분가루가 든것이 내솟아잇는것이 조코

(二) 아조 빗갈이 보기십도록 처처한것이 조코

(三) 살이 보드러운것이 조코

(四) 무게가 무거운것이 조코

(五) 형상이 호함으로며마라도 조록이 생긴것이 조코

(六) 꼭지가 든든하게 부튼것이 조코

(七) 주름살이 잔것이라야 조흡니다。

한마디 부치어말슴할것은 호박의 고향은 안남(安南)근처랍니다。안남은지 캄보차라는데서 나왓기때문으로 일본말로는 『가보쨔』로 한다는 이야기도 잇습니다。

童話 암탉의편지

昔川 康承翰

고흔햇빛이 뽕옥하늘을 붉웃이 물드리고 올는는 어느날아츰엄닭한마리가 일즉히 이러나서둘로 왓다갓다하며 모이를먹다가 이상한 조히조각하나를 어뎃습니다。

『이게뭐야?팡고진가?편진?』

하고 자세히보니 김부자집에갈 편지엿습니다。

김부자가 떨어트린 편지로생각한 암탉은 편지를가지고 그냥 잇슬수업서서 볼야볼야 김부자집에 전함으로 그편지를 두엉지(두엄이)안에 조심히 너허가지고 집을떠낫습니다。암탉의집에서 고개넘어 김부자의집까지는퍽으나멀어서 암탉이끄끄끄끄하면서 참외밧、배추바를 아홉이나 지낫서도 아직도 부자집은 볼수가업셋습니다。

『애이거꽤멀구나!끄、끄、끄』

이러케 중얼거리며 가누라니까 수풀속에서 여호한마리가 룩 뛰여나오며

『여보서요 암탉아주머니 아니서요?그런데 어딜 가십니까?』

하고 말을붓첫습니다。여호라는 증생은 성미가 고약한 증생이지만은 어느때 여호가 돗에치인것을 암탉이보고 풀어주엇기때문에 암탉과여호는 남달리 친한 친구가 되엿든것입니다。

『아이구머니나!여호아저씨구먼 나는아주 소중한 편지를 가지고 고개넘어 김부자집에 간답니다。』

『네 그러서요?그럼 저도 가려갑시다。』

『아이구 고마워라!그럼 이두엉치안으로 들어가시구려。』

그래 여호는 암탉의 두엉치속으로 기어들어갓습니다。암탉은 또한참 걸어서냇가에 이르럿습니다。

『아이 여보암탉아주머니! 어덜가서요?네?좀-좀-。』

냇물이 암탉을보고 반가워코계소리첫습니다。며칠전에 냇물울가로만은 모래둥을 터노하주엇기때문에 냇물과도몹시 친한 사이엿습니다。

『네、네 나는 편지를 가지고 김부자집에 간답니다。』

『그러서요 그럼저는 늘세상구경을 실컨하고 시퍼서 원이엿는데 암탉아주머니 나도좀다려고가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문 이두엉치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래 냇물도 벙긋벙긋웃으며 암탉의 두엉치안으로 흘러들어갓습니다。

얼마를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뜨거운것을 불맛낫습니다。암탉은 뜨거운것을 대단히 실혀하는터지만 얼마전에이롤이 마자마자 암탉이 잔디풀과마른나무를 가저다가 살려주엇기때문에 불과도 매우 친하게 지냇습니다。

『암탉아주머니 어딜 부주하게 가십니까?』

『저 고개넘어 김부자집에 가는중이야요。』

『그럼 저도 좀 다려고 가주서요。』

자꾸 조르니까 맘씨조흔 암닭은 곳 그리하라고 허락하엿습니다。그러나 불이 두엉치안으로 뛰여들어가니까 그속에안고잇든 여호가 불을보고 따겁다고 야단을 첫습니다。그래할수업서서 물은 활-활부터 말쟁이 탄불에 재가되여서 두엉치안으로 들어갓습니다。

해가 서편산우에 기우러서야 암탉이 숨차게 김부자네 대문려에 이르럿습니다、대문직이가 암탉을보고

『이게누구냐?그두엉치안에 무엇이 들어잇느냐?』

하고 배 소리질럿습니다。

『네 저는 저-동리사는 암탉이올시다 이두엉치속에 아주귀한편지를 너어가지고 주인어른되시는 김부자를 뵈오려왓습니다。』

『옹 그래그러면 들어가거라』

하고 부자잇는곳으로 들어가게하여주엇습니다

부자가 살고 잇는 방안은 아조 썩 넓고 모든 차림차림이 훌륭하엿습니다。김부자는 암닭을 보고 아주 점잔은 목소리로

『이게 누구냐?』

하엿습니다。암닭은 두엉치를열구리에 끼채로 고개가 방바다에 닷게 절을 하고

『네네 저는 저、저 동리에 살고 잇는 암닭이 올시다。놀러 온것이 아니라 영감님에게 드릴 편지를 가지고 왓습니다。』

하니까 김부자는 물엇든 담배스대를 딱딱 털며

『응 그래 무슨 편지냐? 디보자。』

하엿습니다。그래서 암닭은『아마 이편지를 드리면 용하다고 칭찬하여주겟지!』하고 두엉치안에서 그조히조각을 기운잇게 끄내여 김부자아페 내노앗습니다。그랫더니 웬걸이요 김부자는 갑작이 얼골이 우락부락하며

『예익 고연놈의 암닭 이게 뭐라팜이냐?이게 무슨 편지란 말이냐?』

하며 조히조각을 내던젓습니다 암닭은 그조히조각을 잘간직하여왓지만 두엉치에 들어잇든물에젓시고 재가무든데다가 여호가 더러운발로 함부로 밟어서 편지가아니라 걸네가리동하게되엿습니다。

『야! 누구업느냐? 이버릇업는놈의 암닭을 어서 잡어다가 닭이장안에 가두어라!』

하고김부자가 벼락가튼 소리치자 미욱생긴 하인들이 달녀들어 암닭을 꽁꽁 묵어서 닭이장에 가두어버렷습니다。

『끄끄대팍팍팍꼬꼬 잇노라니까 두엉치속에서 여호가나와

『암닭아주머니 우지마우。내곧러드릴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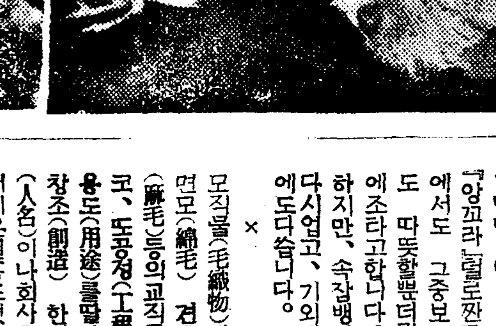
하며꽁꽁 묵인것을 금방 다 풀어노코 여호 // 잠통에 암닭을태우고 닭이장안을 빠저나왓습니다。그랫더니 어느새 김부자집 하인들이 도망가는 암닭을보고 따라와잇습니다。여호와 암닭은 죽을힘을 다드려 다라낫지만 자꾸따라오는 하인들보다 빠르지못하여 그만 거진잡히게되엿슬때 암닭의 두엉치안에서 갑작이 냇물이 쾅-쾅- 흘러나와 큰강을 이루엇습니다 강물을 건느라고 하인들이 배를 띄우며 애쓰는동안에 여호와 암닭은 멀리 달아낫습니다 그래더니 하인들도 지지안켓다는듯이 강을건너서 또 따라왓습니다。

암닭이 또 거진 잡히게되니까 이번에는 두엉치안에서 재가 얼마든지 날아나와서 길이 안뵈이게 뽀-야케 만들엇습니다。하인들이 재때문에 애쓰는동안에 암닭은 땀을 흘리며 집에까지 왓습니다。

뛰여오면서 땀을 흘린데다가 재를 뒤집어써서 재빗닭이 되엿습니다。그래 이암닭이 재빗병아리의 할머니가 되엿습니다 (끗)

의조흔사이

개가고양이를쫏고 고양이는 쥐를잡아먹고……의례히 다 이런줄만알면 실수올시다。본시 갈가사크 원수지간이라 서로상극이겟지만 사람의지혜가 중간에드러 그런 동물들을 잘어루만지고 달래서 길드리면 거기에도의리가생기고 정이드러 서로 해하지 안케되다 하고 갑니다



사진을보십시요 아닌게아니라 개가고양이와 쥐들등에 업혀는 해치라는 생각이 업섯겟지요 쥐와고양이는한 형제간처럼 의조흔 얼골이 울시다 병과개가 서로맛다치면 무슨말이나는지 서로 피하든지 할것입니다만은한 집안식구로알고 힌잔케역이는모양 심술구즌『와야-』혀어도초리아』한개가 조용속에서 뛰어나오카나리아를 보고도 귀엽다는듯이 꽁꽁거립니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二十日―至三十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四君子書를包含함)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 左記 一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 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十二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十三日至九月十五日(但前記支局을通하야搬入할時는九月十四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織物漫話 시체옷감은 엇더케짠것인가 ⑤

吳淑根

『일시』는 종토(種兎)한쌍에 백원 이백원도하얏지만 그러케 고급품이아니면 대개십원이상이면살수잇고 먹이(飼料)는하로잔북한홉 기타과일껍질 채소찌기잣물、비지、일본집이면차(茶)찌끼 이런것(등)을먹이고 다달이한배에 팔구마리식 색기를나코 난지일두달만이면 다큰답니다 털은석달에 한번식깍는데 일년에약한『폰드』쯤나고 털갑은 일등일『폰드』에팔원오십전 이등륙원륙십전 삼등이오원오십전이요 속털이 상품한『폰드』에이원사십전 하품일원이십전에팔수잇는데 부업으로 쏙마리면 적당하다고하얏습니다 과연리가남고 아니남는것은저본후에야알일이요 우선소개만합니다。

『양모라』털로짠모직은 모직중에서도 그중보드랍고 가볍고도 따뜻할뿐더러 풍병(風病)에조타고합니다。양모보다는약다시업고、속잡벵이나속옷으로는에도다습니다。

×

모직물(毛織物)에는순모직외에 면모(綿毛)견모(絹毛)·마모(麻毛)등의교직물(交織物)도만코、도공정(工程)、색상(色相) 용도(用途)를딸아서일홈이달고 창조(創造)한지명(地名)인명(人名)이나회사(會社)일홈을따서지은일홈도잇습니다。『만탈케트』『나『헨으리엣타』가튼것은 사람의일홈이요、『머슬린』이나 『키며민스터』『스코치』『루위-드』가튼것은 땅일홈입니다。

『머슬린』은 일본발음으로『모스린』이요、또『머린스』라고도 합니다。맨처음에소아세아(小亞細亞)의트리꼬리스방가씩모스-『지방에서 짯대서 그러케 부릅니다 원간무명실로 짯든것인데 털로짜키는물란서에서 시작이되엿습니다

호-므·스핀 면양의털을 깍거서 씨서가지고 필요하면 염색을하든지 다른털과석거서 추리고가려서 자새로실을켜가지고 예날방직그게가나기전에 쓰든 손틀로짯든모직이니『호-므』은 가정(家庭)이란뜻이요『스핀』은고치를켠다는뜻입니다 그까닭에실이비교적굴고 골으게빽피지는아니하지만 감촉이노면 그래로도한 운치(韻致)가납니다 근래에와서는 도리혀『호-므·스핀』을모제해서 그게로짠모조(模造)스핀까지나게되엿습니다 조선의면양장려와함께 이『호-므·스핀』는장려중입니다

×

모직옷을 빠는데는 농후(濃厚)한세탁액(洗濯液)이나 더운물에는 오굴어드니 세탁약액(藥液)은아모조록물게타가지고 찬물이나미근한물에빠시되 빠실때 넘우세게비빈다든지 문질러도 줄어드니 판판한 널반지우에 펴노코 부드러운솔로 착착칫사무들겨가며 빨든지 그러치아니하면 손으로줌울러빠시는것이 조흡니다。

五、인조견

고치에서뽑는 비단실이 조키는하지만 양잠(養蠶)은 어느나라에서든지 다되는것이아니요 또되는나라에서도 비단실은 갑시만흔까닭에 엇더케하얏스면 갑시싼대용품(代用品)을 만들수잇슬가하는것이 늘 숙제(宿題)엿습니다。그러다가 일천칠백사십사년에 불란서박물학자(博物學者)『레오뮤-르』이라는이가 생각하기를 대체 누에배속에 들어잇는 끈끈한 집(汁)이 누에가토(吐)하는데로 밧그로나와 공긔(空氣)와 접촉(接觸)하는 그순간(瞬間)에 구리더서견사(繭絲)가 되는사실로보아서 나무진(樹脂液)이나 칠(漆汁)가튼것을가늘게 홀려질린다면 견사와가튼것이 되리라고 생각한것이 시작이 되여가지고 그후로여러학자가 두고두고 연구한결과 오늘날 가장 만히쓰는방법중에 목재(木材)를 화학적으로 녹여서어든『비스코스』라는것을가지고 다시가늘게뽑아서 굿처서 인조견사(人造絹絲)를만들게되기는 일천구백년전후부터입니다。

외관(外觀)으로는 정작 견사(絹絲)와 가티 광택(光澤)이 나기는 하지만、하나는 동물섬유(動物纖維)요 하나는 식물섬유(植物纖維)로 전연 그 실질(實質)이 달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견사라는이 보다는 차라리 모조견사(模造絹絲)라는 것이 올타는 외론도 잇고 또 누구는 광택섬유소(光澤纖維素)라고 하는것이 올타는등 말이 만타가 인제제조업자들이 회의를 하고 역시 그광택으로 보아서 『레이온』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이 되엿습니다。『레이욘』광택(光澤)는 그『레이욘』이니 광선(光線)이란말이라는뜻이엇다

인견은 보통한폭에 도매가격 삼이삼전 하지만、뚝일재품에 『레페롱』『다『마르틴』 가튼것은 육사십전 가는 고급품도 잇습니다。

병아리는 자나면서부터 거롱바롱한다。엄마닭을 따라 아장아장。
엘에 무엇이 무덧구나。도-리 도리해서 허려라。
또재주 하네—
한발로 서고
한발로 잠잠。
(글쓴사람 김혜연)

續夏漫筆 梁啓超와人才評 (一)

湖岩

中國近世에 이름노픈 歷史家인 故梁啓超氏는 일즉 人才를 말하되 中國歷史上 人才가 輩出하기는 먼저 戰國秦漢의交를 꼽겟고 다음은三國。다음은 唐宋의交。다음은 元明의交。最近은 咸同間이라고 하엿다。그는 다시 人才의輩出하는原由를 說明하야 갈우되 사람에게는 伏能이 잇서야 平時에는 自己스스로도 알지못하게 腦髓속에 뭇처잇다가 大刺激을 바드라야 비로소 大發揮하게되나니 이를테면 嬌弱한 女子가 一朝有事할때 能히 水火中에서 愛兒를 救出해내는 實例가 얼마든지 잇다。이것이 일은바伏能의 發揮이니 人才가 平時에적고 非常時에 만히 나타나게됨은 이때문이며 決코 世人이 말하는바와가티 人才가 氣數의關係로 偶然히 생겨나는것이 아니다。그러나 政治制度가 完美한 文明國에서는 平時에도 역시 人才가 産出할수 잇다 다만 中國가튼 나라에서는 歷史上으로 볼때 危急存亡의 秋가 아니면 人才가 크게 出現하지 못한것이 事實이다。이것이 梁氏人才史觀의 要旨一端이다。

그는 다시 나가 말하되 아무리 非常時라도 人才를 産出하지못하고 말수도 잇스니 古今을 通하야 人才하나도 나어보지 못햇다고하엿다 지금 左에 梁氏의 原文을 들건대 …抑自古及今。未嘗一産人才之國。則亦有矣。若朝鮮是也。이로보면 梁氏는 朝鮮으로서 이대까지 歷史的人才하나도 産出하지 못햇다고 斷定한것이다。이것이 과연 史實일가。또한公平한 觀察일가。梁氏의 이른바 人才는 치우처 政治軍事方面의 經世的 力量을 가진 人物을 意味한것인바 그러면 梁氏의말과가티 朝鮮에는 一般이 承認할만한 人才하나도 나지못햇는가 일즉 中國史家로 하여금 沈鷙有術數라는 歎賞을 發케하든 乙支文德은 어떠할가? 만일乙支文德도 梁氏에 차지안는다면 唐太宗과 겨루든 東方最高의英雄蓋蘇文이 어떠할가 그는 遼東의 高句麗의權力을 實權으로하야 唐의中에 大唐天子가 업섯다 唐太宗을 꺼두리고 唐의太宗帝를 욕되엇다。王安石이 그를 非常人으로 評하엿거니와 後世史家뿐아니라 그가 生存한 當世에잇서서도 日本의天智帝께서는 그를 讚歎과 敬服하여섯다。

어떠하든지 蓋蘇文이 살어잇는동안에는 當代英雄李世民도 뜻을 일우지 못햇다。다만 高句麗의滅亡으로해서 그人物의全面이 잘드러나지 못하엿스나 東方史上에 大波瀾을 일우킨 主動者의 一人인만큼 아무리 줄잡아도 蓋蘇文을 人才아니라고 할수는 업다。그러나 梁氏는 그의 崇仰하는 唐太宗을 때려부시든 蓋蘇文까지도 人才의圈外에 두엇스니 이는 확실히 自國才書으로 梁氏의 認識不足이라 아니할수 업다。

中國의 큰學者요 또 큰政治家인 梁氏로서 朝鮮에 對한知識이 이러케도 淺薄하단말인가。東寧樓。秋風嶺。또는三韓衆十兆。吾見。等等을 일즉發表하야 朝鮮時節의 愛國에對하야 얼마큼 關心을 가진梁氏로 오히려 이런 認識不足의 失言을 한다면 그他一般中國人士는 더구나 말할것도 업는것이 아닌가。自來中國人이 朝鮮事情에 서툴다함보담 아주 暗昧하엿섯다。

朝鮮人은 中國의 經史子集으로 乃至변변치못한 詩句까지도 그대로 記誦하엿슴에 反하야中國人은 오늘날와서도 朝鮮史한페지를 보지아니하는模樣이다梁氏의 認識不足도 理由업는바아니다。

『마심●꼬리키ー』의 藝術에對하야 (8)

韓雪野

그러니만치 一方의세력에對해서 偏愛를 가지게된다。때로는 浮浪層特有의 들뜬心理로 왕청된생각과、이편에서 저편을 쪼빗이넘겨다보는 投機的인心理도 가지는것이나……。

그러나이러한『사무킨』의

運 命은 歷史를濫觀하는때에잇서서 容易히斷定할수잇다。멸망과終焉이 잇슬뿐。

이作은 노구의눈에도 그正體가 判明되기쉬운 從來와如한 자본층의人間型을 끄러오지안코 一種의保護色으로 假裝한 似而非타입을 取한데에 一段의進步的意義가잇다。即거트로는 그럴듯이 꾸미고 자본機構의 缺陷을 用意周到히批判하면서도 事實은로동자측에 屬하는것이아니라 도리혀 그지나침을 嫌惡하며 恒常進化論的範圍內에서 기껏해야 자본주의의 倫理하고 優秀한代表者들의 頭腦에 呼訴하고 陳情하라는 典型的타입을 取한데에 意義가잇는것이다。

그리고 이作에잇서서는 當代인텔리겐챠의頭腦를 構成하고잇는 一切의文學的 또는思想的傾向과流派——톨스토이、니ー체、투르게넵흐、또스토에프스키、체ー홉、고ー고리、안도레흐、입센、메ー텔링、벨레ー、모리엘、쉑스피어、피ー터、빠이론等의 이데ー가完全히 揷入되여잇다。이러케 이作은 巨大한思想의批判을 包含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生 硬한理論에 치우침이 업시 그特有의 高度의藝術的形象가운데에 表現되어잇스나 이作品이 巨大한畵幅이라고 불러지는理由도 여기잇는것이며 前人未踏의 新境地를 開拓한藝術的完成品으로서의 指標가되는理由도 여기잇는것이다。

이以上에서 우리는 그의藝術의發展過程을 極히概括的으로一瞥하엿스니 인제 結論을 써야할것이나 그의全貌를 彷彿케할에는 筆者의識見이 너무도 짜름뿐아니라 일즉 그의創作에對한態度와 藝術的創作의 課題에對한 그見解를 全面的으로 明白히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러한것은 첨으로 쓸것이나 이個人의交友關係나 藝術的見解의交換은 實로 複雜한것이어서 不可不 稿를달리하야 쓰는수밧게업다。그러나 그를말할에잇서서 이리읫지를 빨수업는것이니 그

重 要한見解의若干을 擧論함으로서 이論을막으려한다。

꼬리키ー가 獨學者特有의 博學鮮으로 聞見과研究가 實로形言할수업시 多方面임은 天下周知의事다。文化의範疇에드는 各部署各種에亘하야 通曉하엿스며人間이란 人間에對하야 알지못하는것이업섯다。그리하야 幾多評家는 群盲撫象格으로 或은부르조와文化의 俗物的愛好」라고 부르기도 하엿고 或은 無意味한 人間의羅列과가티도 생각하는일이잇섯다。

그리하야 트로츠키주의자인 고루바첸호는 그를『人間生活의 레바게잇는 奇人과怪鮮』을 取扱하엿고 부르지젓고 멘쉬비키인 프레하노흐는 機會主義로써 불릿다。뿐만아니라 좌익評家인 에루미롭호는 부르조아民主主義의 同伴者라고 規定하엿고 가장優秀한評家로서 불러지는 아우엘밥호까지꼬리키의 方法을 非프롤레타리아的方法이라고 불럿다。

그러나 그는 各層의 各樣各色의 人間相貌와 그眞實한 內部를 徹底히 捕捉한 作家일수잇섯다。그는 實로 當代의 現實과 人間을 如實히

反 映하는 거울이엇다。조코 크고 넓은 거울이면 또한 그만치 잘 크게 넓게 對象을 비칠것이니 거울이 物體를 비칠다고해서 나물하는者ー잇다면 그는 愚者일뿐이다 그런데 그는 다만 表面을 비치는 거울이엿슬뿐아니라 實로 內部를 비치는 透射光線이엇고 象하야 細胞를 밝가내는 銳利한 메쓰이기도하엿다。

現實과가티 複雜多岐한가운대서 그리고 現實과가티 기픈곳에서 빗나고잇는 그의作品의 메쓰와 가튼 이要所를 보지못하고는그의藝術을 理解할수업는것이다

그는 애초부터 이러한核心옥가지고 잇섯기때문에 初期의諸作品에잇서서 浮浪人의 藝術的形象을 第一列에 押出하면서도 그는決코 方向업는 放恣의禮讚에끈치지안헛고 아나키스트的個人主義的 또는아무것에도 拘束되지안는 니ー체主義的인個個人의我意의禮讚에도 머므르지안코 恒常歷史의 力線에沿하야 發展上向하엿든것이다。

그가 다만 거울과가튼 一面만을 가지고 잇섯다하면 그能은 다만 表面을비치는데 에만 잇섯슬것이나、그는決코 그에끈치지안코 表面으로부터 속기피 透射하야 必要한곳에 메쓰를대이어 참된生命을 現實의本質을 빗나게 表現하엿다。그리하야 룸페와 뿌르조와와 인텔리겐챠를 그리면서도 거기에滿足하지안코 不斷히

探 究의深度를더하야 마츰내 歷史의主線을發見하엿고 그線에따라서 그藝術은 꾸준히 發展하엿다。即그의藝術的垂直線은『맨나즌곳、맨밋바닥으로부터 솟사올라서、世界歷史上에서도 極少數의 人物밧게 探究하지못한 노픈「觀照」에까지 到達하엿고 巨大한石階를 맨드러 階段으로부터 階段 卽光明의 頂에까지 꾸준하엿과 볼라는 意志로 熱烈히 上昇하엿다。

▼▼…瀑布를차저서……(其十)……濟州島의天池淵瀑

現代文學의新局面

—그哲學과의聯關性에對하야—

③ 金午星

文學이 파토스 또는 感情에 依存함과 反對로 哲學은 로고스(知性)에 依存한다。파토스가 心臟的이라면 로고스는 頭腦的인것이다。파토스는 頭腦업는心臟이라면 로고스는 心臟업는 頭腦라 할것이다。그러므로 파토스는 항상 새로운 體系를 建設하며 創造하려함에 反하야 로고스는 이미 어떠진 體系를 組織하며 完成하려하는것이다。藝術家는 想像을 武器로함에 反하야 哲學家는 論理를 武器로한다。그리하야 藝術家는 體驗과 觀察과 想像으로서 具體的인 形象을 創作함에、反하야 哲學家는 思索과 論理에 依하야 概念的 認識으로서 抽象的인 이데오로ー기를 形成한다。

이리하야 파토스와 로고스 文學과 哲學은 서로 和合할수업는 안티노미ー的關係를 갓고 잇는듯하다。그러나 파토스는 로고스가 업시는 自己를 實現할수 업스며 로고스는 파토스가 업시는 自己를 새로히 形成할수가 업는것이다。哲學이 낡은 로고스의 形態로부터 새로운 로고스를形成하려면 轉形期的인 파토스의否定을 媒介로 하지안흐면 안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파토스는 로고스를 推進시키며 發展시키는 原動力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파토스가 가저오는 뮤토스를 이데오로기ー로서 組織하며 完成할 義務를 가지고 잇는것이다 實際에 잇서 各歷史的時代의 初期에 낫타난 새로운 哲學은 로고스와 파토스가 聯結되여 잇섯든것이다 그리하야 로고스로서의 哲學은 當時의 파토스의 要求에 依한 뮤토스를 實現하기에 奉仕하엿든것이다 希臘의 自然哲學은 希臘民族의 뮤토스이든 이오니아에 奉仕하엿스며 中世紀의 아우구스티누스의 哲學은 羅馬貴族의 뮤토스인 神國思想에 奉仕하엿스며 近代에 와서 빼ー콘은 商工階級의 뮤토스인 自然征服에 奉仕하엿든것이다 그리고 今日의 맑스主義哲學이 下層民衆의뮤토스를 實現하려는데 奉仕하고잇슴은 勿論이다。여기에서偉大한哲學家는 로고스와파토스、뮤토스와 이데ー、뮤토로기ー와 이데오로기ー를 融合시켜 일은바 文學的인 哲學을 樹立하게되는것이다。文學的哲學은 一種의 안티노미ー的關係에 잇는 파토스와 로고스 즉 感情과 理智를 融和시켜 全人的인 人格을 보여준데 偉大한 功績이 잇슬뿐아니라 理想을 現實에 結合시킴으로서 人類의 思想的生活을 潤澤케한點에서도 우리에게 偉大한 影響을 주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파토스와 로고스와의 안티노미ー的關係는 언제나 各自 自己充實에의 傾向을 갓고잇는것이다。로고스는 파토스와 結着되여 잇는 限에서 自己의 論理的機能을 充分히 發揮할수 업다。이리하야 로고스는 파토스의 制約을 脫出하려한다。여기에 拍車를 加하야 社會가 頹敗期에 이르러 파토스가 受動的인 感情에로 轉化되게 되면 그때는 로고스는 完全히 獨自的 領域을 主張하게 되여 마츰내 心臟업는 頭腦로서 일은바 純正哲學에로 나아가게 되는것이다。

純粹哲學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파토스는 가장 劣等한 世界에 屬한것이라 하야 온갓뮤토스를 哲學의 圈內에서 逐出한다。歷史的으로 보아 古典的인 純粹哲學이 파토스 또는感情을 自己의 哲學體系內에서 容認한 例가 極히 稀少한것이다 아리스토테레스로부터 토마스·아구이노스、데깔트、스피노자、라입니츠、깐트、퓌히테、헤ー겔에 일으기까지 그들은 모다 파토스를 逐出한 純粹로고스로서自己體系를 形成한것이다 그들가운대는 藝術의 世界까지도 파토스가 아닌優美 壯美 崇高등의知性的인 이데ー에 依存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잇다。깐트는 美的世界를 判斷力에서求하야 아무런 現實的인欲求라도 因緣을 끈은 純粹이데ー의 領域에서 藝術의 殿堂을 차즌것이다。그러면 이러한 主知主義的 純粹論理的 傾向은 우리에게 어떤 結果를 보여주는가? 파토스와 結着되엿슬때의 哲學은 建設에의 論理 創建에의 原理이엿다。

漢詩

『薔薇』—押香 桐岡 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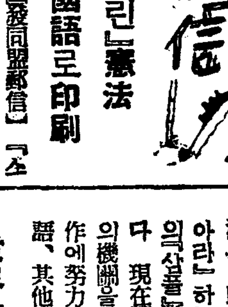
佳作之二 烏山 權◯夫

誰裁剪錦染霞光
滿架層懸繞我堂
薄醉穠成樣宿靄
新粧纔罷媚晴陽
晩酥亂點微生暈
蝶粉輕盈自有香
或恐繁枝遭打誤
鶯啼傍樹莫投傷

學藝消息

海州『文協』主催 崔丙漢氏歡迎會

東京에서 十餘年동안 專心劇藝術運動에 獻身해온 演出家 崔丙漢氏의 歸鄕을 機로하야 海州文化協會藝術部에서는 氏와더부러 하롯저녁의 懇談을 가지고저 지난二十八日(七月)下午七時부터 市內大正館에서 崔丙漢에게 듯는會를 開催하엿다하는바 降雨中이엇슴에도 不拘하고 有志二十餘人의 參席下에 藝術의이야기로 꼿피우다 同十一時頃 和氣靄靄裡에 散會하엿다한다。



『스타ー린』憲法 各國語로印刷

【모스크바】(聯同盟郵信)『스타ー린』憲法의 出現以來 敵으로서는『宣傳憲法』이라고 揶揄를햇고 이편에서는『眞正한民主化憲法』이라고 讚仰을밧는中에서 政府는約束대로의 大衆化에邁進、村이라는村、工場이라는工場마다 討論會를열어 그 徹底的理解를 計畫하고잇는데 눈으로볼수잇는 宣傳에도在力하여 千五百萬의『팜푸렛트』와『포스타ー』를印刷、同國坊坊谷谷에配布中이다 勿論그徹底한『勤勞民衆的』의 民主主義的憲法은 民主主義國에도『이것보아라』하는드시『쏘베트』政治의산實物로서 紹介할必要가잇다 現在『모스크바』國立印刷所의機關을動員하야 數萬部의製作에努力하고잇다 獨逸語、佛語、其他各國語로印刷中이다

世界書籍이 二千五百萬冊

【마ー르게ー트』聯同盟郵信】『世界에存在하는 書籍의數는二千五百萬冊쯤 될가?』ー有名한『만체스타ー』圖書館長『스탄레ー·쟈스트』氏는 七月初旬『마ー르게ー트』에서 開催된 圖書館協會의席上에서 發表하여다 그래서 汗牛充棟의故智에倣하야 大英博物館의五倍가되어도 오히려收容하기어렵다고 形容햇는데 다시그는繼續해서 다음과가티말하엿다『年年비오듯하는 書籍의數가 마친내二十五萬에 達하엿다 書籍ー早魃』이라는것은 업슬것이고 世界의全書籍을一文庫에集積할수잇다고한 어느傳記學者의希望은 어리석은 空想에지나지못한다 中央亞細亞의 어느洞穴에巨大한圖書館이 埋沒되여잇다는傳說은 架空의傳說일것이다 그러나또한참말일는지도 모른다 現在에도中國서는西歐人이 거의全혀모르는全然見聞하지못한 文獻이아직無數히存在하고잇다』(完)

贖學生通信

一蒐集行脚一(二)

—山上茅屋의하로밤—

城大 金思燁

洞內에는 진천이 桃木이나 棗木、그러치안흐면 柿木이서잇고 山谷에서 흘러서 이마을을 꿰돌아 洞口압냇물에 合하는 실개천兩側에 아가시아가 질늘질늘서서잇서 아스팔트를깐 의德道를 늘洗滌한마음으로 고만잇는 第에게는 千年前과다름이업는 이素朴한 風景이 도로혀 色다른 늣김을 자아내게하고 나로하여곰 讀지는마음을 禁치못햇읍니다。

정동지섯과 쨍울기여울며 싱싱하게자란 호박덩굴과 박덩굴 멀수록하게 생것스나 主樑히 忠實한개 平和의 象徵가튼 닭 이것은 이 洞內 지집이다 가지고 잇는 唯一한 財産이고 그네들의 糧食이기도한니다。

이洞里에 온後로는 이마을先賢들의 文集이며 族譜등을어떠보고 現在의 生活狀態를 目睹하고서는 더욱이 이것은一小部落이나마 由來깁흔것을알엇슴니다 이마을은 文化柳氏中 義谷派만이 살고잇는部落입니다。死六臣의한분이신 柳誠源先生의 從孫되는 柳自湄이라는이가 善山으로 流謫되여 그곳에서 寓居하고잇다가 其後二十五世孫되는 漢顔(號鳥圜)이 처음이곳에 卜居하야 일즉이 學業을 일삼지안코 藏修하야 一生을 맛첫드니 그後裔들이 그대로 이자리에 安定하야 今日에 이르럿다하며 後孫은 恒常鳥圜公의 遺訓을거울삼아 몰골다고 先祖의 잘난德을 더럽히지안호려고함을 唯一한 義務로녁이고 代代遺産을 밋천삼아서 살아나가고잇습니다。

新文明의 潮水가 이곳까지밀여와서 이洞里에 뿌리기피박고잇든 儒敎文化의 殘滓를씨서가기에는 아즉도먼將來의일거갓습니다。

이마을에는 書堂이두곳잇는데 書堂에는 東齋를두어 管理케하야서 過客이잇슬때에는 待接해보내고 先祖의祭日에는이곳에서 祭祀를지내며 其他名節이나佳節에는男女老少들이 모혀서 設宴하며즐거히놉고 平時에는 洞內老人들이 遠近의 騷人墨客을 請해다가 風月짓고 閑談飮酒하는곳이되여잇습니다。

日前中伏日에는 六十歲以上의 老人을 請해다가 개장을끄려 一一히待接하는것을 實地로目睹하고 感心하기를마지못하엿습니다 一般의 生活程度는 近傍他洞보담 多少富裕하며 큰富豪라고는 한사람도업는代身에 한집도 生活에 쪼들리는집은업습니다。生活이 安定이잇슴으로 人心은 따라淳厚하나萬事에 保守的이여서 蒙昧한迷信的儒敎에감기운儀禮慣習을 固執하고 井中蛙的樂觀主義에 支配되여 언제까지나 舊態를脫하지못한채 몃百年前이나 그대로가고잇습니다。

이마을에는 共有財産이잇서서 共同事業에 消費하게되는데 요몃해前에도 洞中子弟들 敎育事業에 補充하엿다고합니다。얼마나 致賀할事業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七八歲만되면 다就學하여 初學敎育만은 어느家庭이나 다맛추워스며 才質이잇스면 얼마든지 上級學校로 갈수잇도록 되여잇섯습니다。그러나 新學問을 배운第二世들은 모다反逆兒가되엿스니 金融組合員 郡書記 醫師 訓導들이되여 他鄕으로뿔뿔이헤여저나가 버리게 되엿습니다。

洞共有財産을 育英事業에 쓰자고 公論한 長老들의 期待는 제各己 工夫를 한다음에는 다 시故庄으로 도라와 自己들들을 爲하야 華麗한 文集이나 만들고 族譜나 修訂하며 맛당히 갓초워야할 禮節이나 갓초아서 洞里를爲해서 일하는 〃얌전한사람〃되기를 바래엿섯건마는 그처럼그들은〃건방진사람〃들이되여서 自己들마을 떠나고나니이에憤慨해서 그事業을 中止함에 이르럿습니다。

腫瘍에對하야

特히癌腫成立에關한研究

④ 鄭槿陽

이것저것 다 不成功에 도라가고 唯一의 方法은 外科的으로 除去해버리는것이다。이밖게 別道理가 업는것이다。外科的手術에依해서도 時期를노치면 救할길이업다。따라서 早期診斷이 가장重要한意義를 가지고 잇는것이다。世界의學者들은 癌을엇더케하면 早期에診斷할수잇슬가하는것에 餘暇도업는狀態다。

이가티治癒가 가장困難하고 各國民에共通되여 人類를 慘憺케하는 癌腫은엇더한 原因으로서成立되느냐。이제 이에對해생각해보자 腫瘍이 엇더한轉機로如何한順序잇는組織細胞로부터 엇더케되여 發生하느냐하는데 對해서는 아직充分히밝혀진배는못되나『모든細胞는細胞로부터』라는 法則은 이腫瘍의世界에도 妥當하다。即、腫瘍도、體內에存在하고잇는組織細胞로부터 엇더케되여서發生한다。一九○三年『케링』氏는 惡性腫瘍의原因에關한 그의論文中에서이가튼말을하얏다。癌細胞라는것은 體外로부터 體內에 一種의胎芽性의細胞가드러와 어떠한組織에부러서 增殖하면 癌腫이 된다고말하엿다。그리고 胎芽性細胞의例로써 蛔의幼虫或은卵、蚊、魚、鳥의卵等을 드럿다。그는 이러한 奇怪한 생각으로出發하야 上述한바와가튼 物質을 體內에 移植하야 癌을만들라고하얏스며 一種의 腫瘍을 만들엇다고 하엿스나 實際不成功에도라가고 말엇다。今日一般에 미더지고잇는바는 腫瘍特히惡性腫瘍이 우리몸에 旣存하는組織과全혀 다른由來의것이라는생각은 全혀成立할수업다。그러면 體內組織을腫瘍組織으로 變化식히는 原因은무어이냐。옛날부터 여러가지論事이잇서왓는데、近年에와서急速度로 發達한實驗腫瘍學은 그全努力을 이點의 闡明에集中하고잇다고 하야도 過言이아니다。이原因으로서는 內因과 外因을생각할수잇다。外因으로서는刺戟 一言에다한다。『윌효ー』는 豊富한 그의經驗으로부터 이것을主張하야 刺戟說을 樹立하얏든것이다。

그러나 刺戟과 腫瘍과의關係는매우 複雜하야 一律的으로簡單한것이아니다。刺戟에依하야各種의組織이反應的으로增殖을이르키는事實은 炎症에서볼수가잇다 增殖이매우旺盛해서 一見腫瘍가티보이드래도 이러한增殖은 刺戟이中止되면 增殖도 또한中止되고 自律的인增殖을하지안는다。

어떠한組織細胞에 刺戟이作用하면 다음부터 곳 그細胞는 腫瘍으로變化하야 腫瘍을 構成하는 이러한簡單한것은아니다。刺戟中에도 가장 簡單한것은 機械的刺戟이다。勿論 刺戟이 繼續하야 作用한다는것이 必須條件이다。하로終日 파이프를물고 늘 담배를먹고잇는사람은 이런習慣을 長久한歲月을 두고 繼續하면 파이프가닷는 입술(口唇)에 癌腫(口唇癌)이생기고 齒牙가맛닷는部分이 늘 족해서 그곳에 機械的刺戟에 依해서 潰瘍이생기고하면 그局所에舌癌이 생기는수도잇다。

物理作用、X線이나 라디움을 濫用하면 그곳에 암腫이생기는수도잇다。또 化學的刺戟이 암의發生에 對하야 큰意義를 가지고잇는것도 옛날부터經驗되여왓든바이다 煙突掃除人의 陰囊에 잇기쉬운 煙突掃除人癌이라하야 陰囊에 煤烟이 만히뭇고 沐浴도잘가지안흠으로 慢性濕疹이 생겨가지고 刺戟이 反復되야癌腫이되는 例도잇다 西洋서는 化學的刺戟이 癌과關係가깁다는것은 近年化學工業의 勃興에따라 工場勞働者들이 特히 皮膚病이만히 생기는것으로도 알수잇겟다 이것을所謂職業癌이라고한다。

化學的刺戟에依하야 癌其他의 腫瘍을 實驗的으로 人工的으로 發生식혀엿다。從來로부터『윌효ー』氏의 刺戟說을 實驗的으로 證明하라고해쓴學者도만햇스나 처음으로 가장鮮明히 成功한것은 山極、市川兩氏엿다。(一九一四年)그들은 家兎의耳에 콜탈을오래동안발나준것이다。이實驗을매우 忽略해서 要하얏슬것은勿論이요 그들의努力에 놀날수밧게업스니 이實驗이成功된後로부터는 이方面에 새로운 氣運이 떠돌게되엿다。其後 廿日鼠를 使用하야 筒井氏는 좀더 容易히 癌을 發生시킬수잇섯다。

寄生虫의 刺戟에 依하야 腫瘍이 發生한것도 적지안케 經驗되엿다。肝吸虫이 寄生한 肝에 癌이 發生한 實例도잇다。西洋서는 寄生虫으로 膀胱癌이 發生하는 事實이 英國서注意되엿다。

細菌이나 原生物等 여러가지 微生物이 腫瘍 特히 癌腫의 原因이 아닌가하고 腫瘍에 一定한 病原體를 發見하려고 努力한 學者도잇섯스나 全部 否定當하고말엇다。

科學의話題

大西洋의新女王 『퀸·메리ー』號

第一回航行에서남긴 놀라운世界的新記錄

英國의큐ー나ー드·화잇트스타ー會社新有의巨船『퀸·메리ー』號는 第一回의往航에 맛침내佛蘭西의『노르만디ー』號를 凌駕하야『세루ー르』로부터『암프로ー즈』燈臺間 三千九十八哩를 四日八時間卅七分에征服하야 北大西洋橫斷의新記錄을樹立하고 大西洋의新女王으로登場하엿다 그時速에잇서서는『노르만디ー』號가 平均二九·六四節로『퀸·메리ー』號의二九·六一節을凌駕하엿스나 아모러튼 大西洋橫斷에는 從來의一切의記錄을突破한것만은事實이다

×

다시一九一○年以來의記錄을보면 一九三○年에獨逸의『오이로ー파』號가四日十七時間六分 時速平均二七·九二節 또『브레ー멘』號(四萬九千噸)가 四日十六時間十五分 時速二八·五一節로 二十年間 一等記錄을保持하야오든 英國의『루ー시타니아』號(三萬八千噸)의 二六·○六節의 記錄을 깨트리고 霸權을 維持하야 마지안헛다 그러나 그獨逸의得意도 一瞬間 一九三三年에는 伊太利의『레크스』號(五萬噸)가『지브랄타ー』로『암프로ー즈』燈臺間을 時速平均二八·九六節로 征服하야 獨逸에서 霸權을奪取하엿다 이것이 昨年까지『레코ー드·홀더ー』엿스나 昨一九三五年六月에는有名한 佛蘭西의『노르만디ー』號(八萬六千噸)가『사잠프톤』에서『암프로ー즈』까지 三千百九十二哩를 四日十一時間四十二分、時速平均二九·六四節로 大西洋을 횡단하야『블루·리봉』의 榮冠을保持하엿다 今番의『퀸·메리ー』號는 時速의 點으로보면『블루·리봉』을 獲得하지못하엿스나 멀지안흔 將來에 時速으로도 新記錄을 樹立하리라는것은 專門家의 一致한 意見이다

×

그런데『퀸·메리ー』號의 來歷을보면 英國의『큐ー나ー드』會社가 아직 화이트스타ー社와 合同하지아니한 以前의 一九三○年에 獨逸의『브레ー멘』『오이로ー파』의 二大豪華船때문에 大西洋의조흔 船客을 빼앗긴데 對해서 起工한것인데 그後世界不況때문에 資金難에빠저 一九三一年十一月一次工事를中止하고 巨體는 二年間내버려두엇든바 一九三四年二月政府로부터 三百萬磅의 補助金을어더 再起工한것이다 同年九月에는『큐ー나ー드』第五百三十四號로서 竣工하고 二十六日에 先帝『죠ー지·메리ー』兩陛下及當時의웰스公殿下(지금의에드와ー드八世陛下)의 臨席下에 進水하야『퀸·메리ー』號라고 命名되엿다 古來바다를 집으로해온 英國도商船이 皇后陛下의 御名을받드러 兩陛下가 進水式에臨御하신것은 이것이 最初이다 그리고 先帝陛下로부터 勳爵까지바덧다

×

『퀸·메리ー』號는 總噸數八萬七百七十三噸으로『노르만디ー』號에 미치지못햇스나 設備는『노르만디ー』號가 新新奇를探取한데比해서 安全과 快適에 注意를 傾倒하야 豪華보담도 氣分을主로하야 實用價値에 重點을두엇다 例하면 特別室에서 三等室에 이르기까지 冷熱兩面의『란닝·워ー터ー』가잇고 間接光線에依한 照明裝置가잇다 換氣裝置도 完備되여잇고 食堂은 一千名의 船客을 一時에 서ー비스할수잇고 社交室에는 토ー키ー의 設備까지잇다고한다 (寫眞은紐育港에 入船하는『퀸·메리ー』號)

◀日本에잇는 讀者여러분의健康을빕니다 本籍을平壤府倉田里五四에두고 專賣局女工으로다니다가 七年前에釜山사람蔡達浩氏와結婚後 日本가잇다가 五年前一次故鄕에왓다간 李昌健氏의二女李小女(當年廿四歲)를아시는분은 直接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謝禮를올리겟소이다 滿洲奉吉線山城鎭 田村商會內 小女同生 李寶成

◀昭和十一年七月二十九日夕刊 讀者社交室에 記載된 墓地使用의 林野를 實踐하신다는 權利者의 住所姓名을 左記住所로通知하시면 相議하려합니다 京城安國町一七ノ九 兪相穆

◀李濟馬著東醫壽世保元의 發行所及賣價는如左 京城鐘路二丁目八二 振替京城二○三番 定價七十錢 以上七月二十三日付光州一讀者에게

◀丙申年十二月十四日午時生은何年何月何日입니까 그러고日辰은무엇입니까 平北博川邑內 林永澔

◀諸氏中에『近世朝鮮人名辭典』을京城府에서 發賣되는 盧鍾用著『朝鮮人物史』(定價三圓內外)를 供用實驗하신분이 계시거든 多忙中未安하오나 其賣物有無及賣價元住所商店名을 알으켜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廣州 一讀者

◀그리운 내親舊 宋秉君! 生死를가티할라든 君의 去處를몰라 日久深月 花朝月夕에 어느날어느時 이저왓슬가? 뜻밧게 朝報社交欄을 通하야 도로 허나의去處를 차저주니 이것이 君의 莫逆友情을 神이感心한 바나 아닌가 한다。죽엇섯다고만미덧든 君의消息에 나는 다만 가삼만 멍멍할뿐이고나 나는그後攝國하여 東奔西走放浪生活을하다가 지금은 뜻아니한敎育界에발길을 드려노흔지도 走馬燈가티 세번째 여름을 마지하는고나 간단히 이것만으로나의이 現實生活의 참담지못해함을 아라다오 떠무러준다면 가삼만아 푸다 속히君의住所와 事情을말해다오 鎭南浦海星學校 獨影

◀諸先生께問議하나이다 二高普가까운곳(特히齋洞、社稷、安國町附近)에 고요한下宿房잇습니까 한家族과가티 하여주실분이게시면이 社交室로알려주시오면 大端感謝하게습니다 (求宿學生)

◀左記書籍을 求합니다 廉價로 讓渡하실분은 金額을 써보내주시옵 鮮鮮林(文學博士金澤庄三郞著)三省堂發兌一冊 改訂增補 詳解漢和大字典(服部宇之吉 小柳司氣太共著) 富山房發行一冊

◀陳者 古穴錢 寬永通寶등을 古錢貨幣所에서 買入한다는 所聞이有하니 確實한지 詳細히通知하야주시기를 切望 其購入處와 價格을 御拜承케합니다 三陟郡遠德面路院里 姜南洲

◀農村青年諸氏中 養鷄에關한 質問을 小生께直接하시면 誠意로서 回答하게습니다 必然코 養鷄는 有望한 農村副業이라고確信합니다 (但郵便三錢切手三枚封送) 東京市世田谷區松原町三丁目六八○○番地 多摩農園內 S·K生

◀兒童藝術을 愛好하시는분에게 말씀합니다。여러兄님들께 記憶할만한書籍을 가즈신분이 게시면 저의蒐集함에 通知하여주시고 左記住所로 一次 通知하여주소서 一、그方面의어떤雜誌 一、童謠、童話、童劇集 一、童謠曲譜集 一、論集等 京城府孔德町三六六 어린이·드라마會內 嚴達鎬

◀尋人 讀者여러분께 우리누님을좀차저주세요 두번이나 부탁을햇섯는데 엇더케 아무소식이업스니 웬일입니까? 三十歲內外난 姉님은 李內三이며 어듸가셧는지? 天堂갓는지? 외롭은생각에 보고십흔情 더욱간절합니다 京內町讀町 작은놈이

◀貴社交室을通하며 못솜니다 生은滿地에서 雜貨商을 經營中이온데 敎育玩具를 販賣코저하오나 發賣元(卽店)을 不知하여그러오니 著名玩具店을 社交室을 通하여알려주시옵 (北滿陶賴昭一同生)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新刊紹介

◀基督敎報 第六十六號(週刊)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番 定價一部五錢

◀中央 八月號(內容)맑소의犯罪과人民戰線 噴火口上의燠地利 戰爭과新聞、批判者와批判 新家庭風景ー柱貞植外諸氏 失業卽戰爭과合理的利用策 特輯ー鄕校財産合理的利用策 特輯 圖小曲唐見聞記 滌暑古談名作集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一一一 朝鮮中央日報社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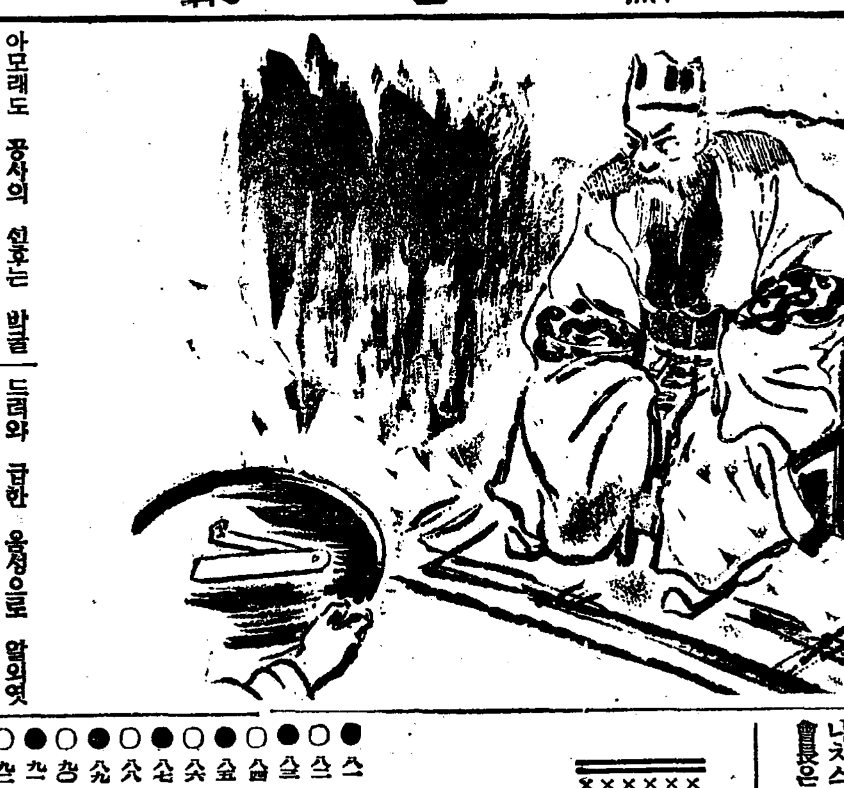
◀月刊野談 八月號(內容)피무든부채 그妓生의一生 鴨綠江의꼿 善과惡 龍江의漁翁不乘의덕 仁祖反正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 振替京城二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新東亞 八月號(內容)歷將乙支文德公 京城의今昔 꼬리키의生涯와作品 內外時事 不安한歐洲情勢 外敎篇 山水와避暑 나와金剛山 卞榮晩 外諸氏 昭和子女指導策 講座와學生特別讀物 探偵小說 野談 創作 詩其他 發行所 京城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連載野談

布衾記 (八〇)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복을짓는그칼 (廿四)

대저 고구려의 대군이 별안간에 락랑국의 지경을 피를 것이어시 살대가티 넘어 들어오기는 그북과 라팔이 업서진것을 미든것이다。

애초 대무신왕께서 호동왕자에게 그북과라팔이 업섯젓다는 말과 또는그북과 라팔을 업샌것은 순연히 공주의 힘이니 그공을 갑는방법으로서 먼저 공주를 데려오자는 말을 들으신뒤 어떠것을 먼저 행하는것이 올흘가를 만히 생각하섯다。

그러나 대무신왕께서는 공주를 데려오는것은 오직 호동왕자를 위한 사사일이오 대군을 보내어 락랑국을 항복밧는것은 나라를 위한 공사로 생각하사 아모래도 공사의 선후는 밝힐수업다고 생각하섯다。

그래서 호동왕자의 간하는정경이 그럴뜻이는 생각하섯스나 필경은 공사를 먼저 행하는것이 당연한 도리라하야 맛침내 락랑국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된것이다

이때 호동왕자는 대무신왕의 뜻이 먼저 군사를 움지기시려는 눈치를 짐작하고

『아바마마 황송하오나 먼저군사를 움지기시면 이 군사를 움지기도록 힘써 주고 또는 공이 만흔 락랑공주는 반도시 죽는 사람으로 알외오。

그러싸오면 우리고구려는 은혜와 공이잇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커영은 도리혀 죽엄을 주는 세움이오니 이것은 고구려의 은인인 락랑공주에게만 못할일이 아니라 이후 부러는 우리나라를 위하야 힘을 쓰려는 재조잇는사람。또는 어진사람의 나오려는길을 막는것이오니 먼저 은총이만흔 락랑공주를 죽엄에서 구한뒤에 락랑을 항복밧는것이 당연한것을 알외오。』

하고 대무신왕의 룡포자락을 감히 잡지는 못하나 거의 잡을듯이 엽흐로 닥어서 뜨거운눈물을 흘니며 간하얏다。

그러나 대무신왕께서는 호동왕자의 간하는 것을 도리혀진로하신 음성으로 『락랑공주의 이번일이 공이만흔줄을 모르는바 아니나 상벌을 주는것도 역시 공사의 구별이잇거늘 어찌 이대지번거롭게하는고?。』

하시며 곳 행군하기를 재촉하섯다。

그러데 락랑왕께서 뜻밧게고구려 대군이 지경을 넘어들어온다는 말슴을 들으시고 하도귀가 막히시어 무어이라 얼는 대답을 못하시고 묵묵히 안저 계신중

『상감마마께 알외오。고구려대군이 벌서 성아래에까지 이르러 항복하라는 소리가 전지를 울려이는듯하오나 이일을 장차 어찌하오릿가。』

하며 군사마른 판원하나히 또 드려와 급한 음성으로 알외엿다。

『으악!。으악!。』

하는 고구려대군의 떠드는소리는 과연 락랑왕의 귀에도 력력히 들니엇다。

『대관절 북과 라팔이 어찌해울지 안엇는가?。』

하시고 락랑왕께서는 이말저말다 들은체를 아니하시고 곳국무고의 열쇠를 차지섯다。

그런데 락랑왕께서 친히 쓰시는 국무고 열쇠는 온데 간데가업섯다。

『이것이 웬일인공 이것이 ……닭이잇는일』

하시며 락랑왕께서는 호궁나미를 모두 잡어 내리어 엄하게 문초하시며 국무고 열쇠를 차지시려하섯다。

『으악!、으악!』

점점 긔세가 올나가는 고구려대군의 금고함성(金鼓喊聲)은천지가 진동하얏다。

이때 공주를 뫼시고 지내든 궁녀 한사람이 그 국무고 열쇠를 가지고 락랑왕 어전에이르러

『국무고 열쇠가 공주 아가씨 경대설합에 잇삽기로 갓다 밧치오。』

하고 두손으로 그 열쇠를 공손히 내어 놋앗다。

『어어。공주아기씨 경대설합에 가잇서!』

하시고 락랑왕은 다만 겨에서 열고섯는 공주를 한번 처다보신후 다른 말슴은업고 빨니 국무고로 행차하섯다。

락랑왕께서 그국무고 문을급히 여시고 드러다 보시매 락랑국의 국보인 그북과 라팔은 갈기갈기 찌저지고 쪼각쪼각께어진것이 헤려저잇다。

『오오。이것이 서방에게 미친 공주년의 짓이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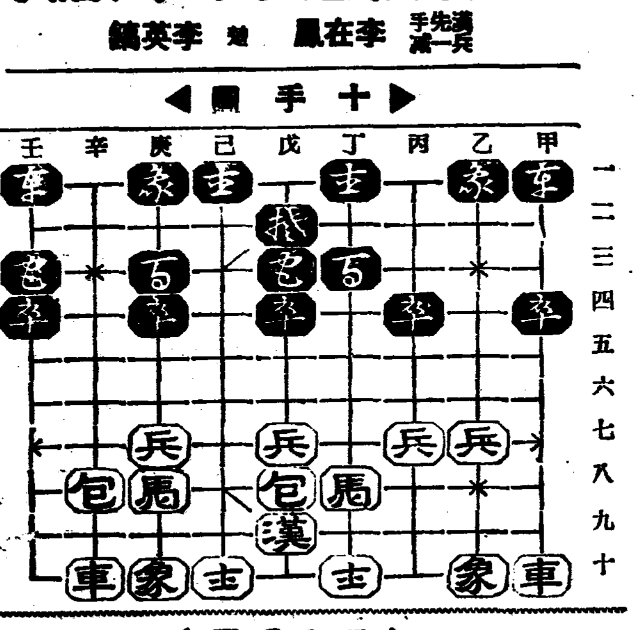
하시고 락랑왕께서는 파랏케질니신 롱안으로 곳 떠전에렵어 하섯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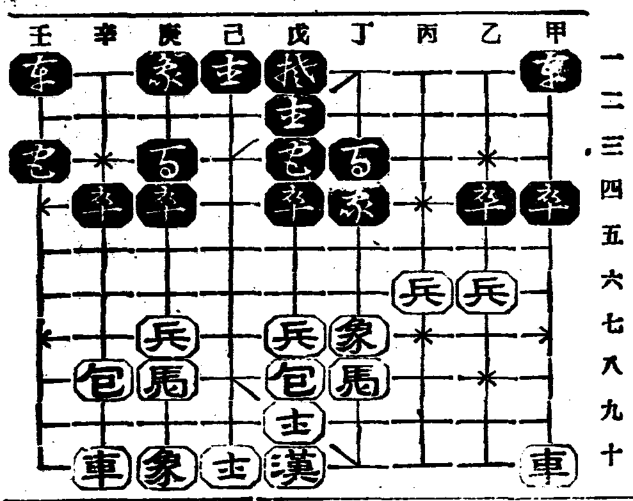
漢先手 一兵 李在鳳 對 李英鎬

◀十手圖▶



◀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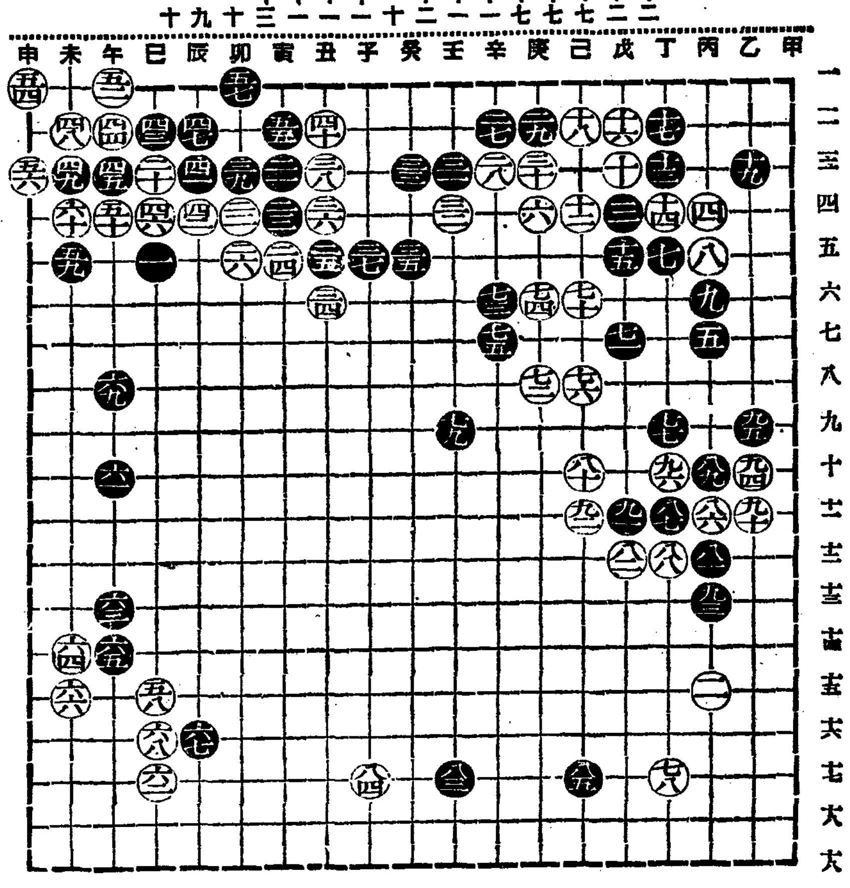
乙七象－丁七 乙二車－丁二 戊九象－戊七 丙四兵－乙四 戊二車－戊一 丁十士－戊九 丁二車－戊三 乙兵－乙六 壬三車－辛三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權乘都 黑先 丁奎春



● 丙의十二 ○ 戊의十二 ● 壬의十七 ○ 子의十七 ● 己의十七 ○ 丙의十一 ● 丁의十一 ○ 丁의十二 ● 丙의十 ○ 乙의十一 ● 戊의十一 ○ 己의十一 ● 丙의十三 ○ 乙의十 ● 乙의九 ○ 丁의十

禁極文氏評曰 黑이 白左右襄을 要慮하야 壬의十七로 入着함은 時期는 時期다 白은 子의十七로 黑은 己의十七 列着圖生이·互是相當하고 白이 丙의十一로 便宜를 取함이지 略說理解하노라

工作은 後面引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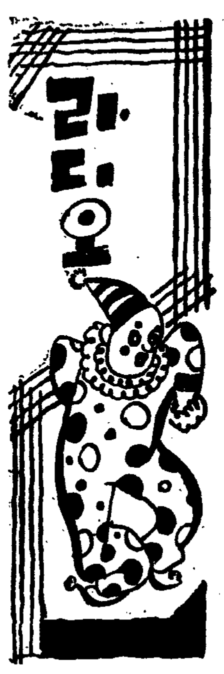
嬢樂

林麗人群에도 打倒나치運動

헐리우드反독리同盟은 獨逸文化的分野에잇서서 나치스主義는 유다야人藝術家들모도 國外로追放한다는 一例로보아도 明白한것가티 極히偏頗하야 國粹的 排他的이다이것은 全世界의 識者로보터 全部好感을 가지지 못하는것인데 『戀愛의閃光』의 都헐리우드에서도 『헐리우드·나치스主義反對聯盟』이란것이 結成되야 相當히 나치스 反對運動을 시작하얏다 會長은 시나리오 라이터의도널드·오덴·스튜아트氏 熱心한支持者에는 美男의 聲望가노픈 푸레데릭·마치氏 女優에는 그로리아·스튜아트孃 米國一流의 才媛이라고일컷는 閨秀作家드로시·파가 女史等으로 猶太系의有力者인데 其他헐리우드의 有名한男女俳優間에는 猶太人이적지안흔만큼 이聯盟이 將來相當한勢力을이룰可能性이 充分히잇다。

聯盟의目的은 『나치스主義及在米나치스代表에對하야 不斷의鬪爭을 繼續하는同時 獨逸國內反나치스運動을 道義的 財政的으로援助한다』는것으로 唯一의념녀는 이러한運動의影響으로因하야 獨逸其他獨裁制國에서 헐리우드映畵의 一切보이코트는되지 안할까하는것이다。

안헤와女秘書 안헤(로이)女秘書(하로)의틈에끼어 苦悶하는男子(게블)를 그린클라렌스·부라운의監督作品



三日 (月曜)

◇午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崔秉鎬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中央日報 裵成龍
◇同八時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金秉旭
◇同八時三〇分 바이오린獨奏 第三파르티타(無伴奏用) 프렐루듸오—루레—까보레와론도—第一메뉴엣트와第二메뉴엣트—부레—지그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三、乾坤歌 桂貞植 文明仙 金美花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怪談『寶物찻는鬼神』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偉人物語 東京放
◇同八時二〇分 二曲과三曲 西村淸琴外
◇同八時五〇分(東)小唄
◇同九時(大)連續物語 夏川靜江

☆曆☆

八月四日(火) 建乙未六月小(十七日) 戊午·火·室·閉
●祭祀에宜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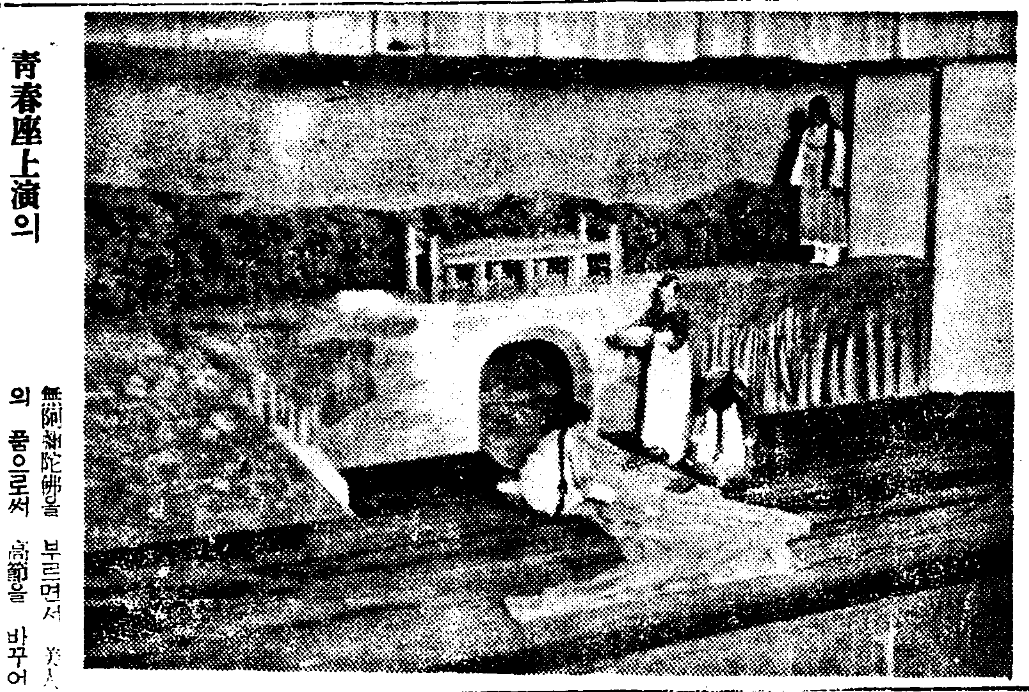
四日 (火曜)

◇自午前六時三〇分 至同七時 第十一回 國際올림픽大會實況(레코—드세) //百米準決勝//百米決勝 (第一放送에依함)
◇午前九時五〇分(東) 野球試合實況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이야기 //兒童音樂教育에對하야//(一) 紹光鎬
◇同七時 經濟解說 金柳?
◇同八時 趣味講演 //各國의納凉風俗// 明倫學院 安寅植
◇同八時三〇分 野談 司空框
◇同九時 唱劇調 短歌 一、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中 //父親離別하는데// 鼓手 池龍九 金柳鶯
◇同九時三〇分 關山戎馬 一、關山戎馬 二、孔明歌 三、기아리 포、寧邊歌 五、방아타령 崔貞子 金秋月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大久保直穆
◇午後〇時〇五分(名) 맨돌린合奏 그라브토메니카
◇同六時(東) 偉人物語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京城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秋) 趣味講座 武藤鐵城
◇同八時二〇分 二曲과三曲 西村淸琴外
◇同八時五〇分(東)小唄
◇同九時(大)連續物語 夏川靜江
◇同六時二五分(釜)趣味講座 史蹟巡禮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世界教育會議에對하야 永山秀次郞
◇同八時 (東) 凉味通信
◇同八時三〇分 (東) 浪花節
◇同九時 (大) 物語 內田元

靑春座上演의『名妓黃眞伊』



市內 東洋劇場에서 公演中인 靑春座에서는 八月一日부터푸로를 갈아서『名妓黃眞伊』를上演한다고한다 才色이超絶하야 一世를 울리든 名妓의 黃眞伊를 中心삼고 十年工夫에 南無阿彌陀佛을 부르면서 美人의 품으로써 高節을 바꾸어버린 知足和尙이며 淸滑한一心이 黃眞伊로하야금 朴淵瀑布 또는 제自身과함께 松都三絶의 하나라는 書齋를바치게한 徐花潭等의 事實을演劇化한만큼 一般의 興味를이끌기 足하나 四幕五場。黃眞伊는 그한場面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同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卽時보내드리겟습니다

釜山府草梁町三二三ノ三 大洋貿易社 電話二二一一九·振替釜山七九二二

スピード膨脹機 (五合米가八升으로되는)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돈버리大王

製麵機大王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特價販賣 中島式製粉機販賣店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一七·振替京城一八二三四

ガソリンテント

丸善テント商会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患者諸氏여言論보다效果에事實이證明된禮狀이踏至하오니 效力의有無는試用後可知하겟사오며用法禁忌注意說明書에詳記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 百八十個入 五圓 三百卅個入 金五圓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製造發賣元 救世藥館 電話本局②二六九·二二六九 振替京城

此外製劑四十餘種 貳錢郵票보내시면 劑引票及規則書付

安心하고보내고 기뻐게빗는다

牛乳石鹼

一個의使用으로빗나는美肌

お中元に最適

No. 367

大掃除의必需品!

液體殺虫劑中에서 有效成分 九八%라고하는 強力한것은 キンチョール뿐입니다 價格亦是 低廉합니다。 人畜絶對無害

金鳥かとり線香本舖 大阪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八月一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入替無シ
▲ジヤバの東 ユ社 チヤーレス·ビツクフオード主演
▲惡魔島脫出 コロムビア ソマ·オフ·アスタア·レン·スイア主演
▲ケンノ魔術師 L.C.P 橫本健一主演
大人·五〇 小學生人三〇 P.C.L映畵と 高級洋畵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八月二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二大名作品特別大公開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夜間八時始映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滿都待望萬年에特作品『忠臣藏』 以上에稀有의豪華版

松竹大超特作全發聲化提供 時代傑作『雪之丞變化』 原作 三上於菟吉氏 監督 衣笠貞之助氏 林長二郞氏一人三役主演 (雪之丞周太郞卅親) 特別出演 新興伏見直江孃 實壽郞 千恵藏 右太프로 高堂國典氏

유나이텟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시도니이·후랑크린氏監督 大傑作篇『따ー크엔젤』 호레드릭마一치氏 말오베론孃 하바르마시아孃 主演 助演

漫畵多數紹介

鍾路五丁目 電光二一三一番

第一劇場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靑春座公演第五週 八月一日낮부터晝夜 (晝一時十五分、夜七時十分) 朴月灘作 朴珍脚色 一、『名妓黃眞伊』 四幕五場 (一名黃眞伊와知足)

松都의三絶로일컷든 朴淵의名瀑과 花潭의道學과 黃眞의美色이라한다 黃眞은絶世의 傑物로 妖艶한탓으로 남자가이病에들어 黃眞이로인하야 죽엇다그는깨다른바잇서 妓生이되어 못사나히를주므르고 그러하야 그는三十年를 고향하 고 道學을 가成佛 이도엿다는 知足마 자주를 닥가 마음을만들고야말엇 다이絶代艶物 黃眞의一生一代記 를한幅그리가 한편의 가리가장 劇的場面만을 表現하얏다。

李雲芳作 悲劇『愛慾』二幕 愛慾은항상우리를즐겁게하다 그리고항상우리를 괴롭게한다 그리하야 모든것이 喜劇을 또悲劇을짜아내주고 야만다 愛慾이人間을떠나도人間이 아니요人間이 愛慾을 떠나도 人間이 아니다

花山學人作三 喜劇『新舊衝突』二場

西大門町 電光3三二番

東洋劇場

八月二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滌暑興行第一週料金階上五〇·三〇 階下三〇·二〇錢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로이텔·루ー스監督 덱크·포웰 안버라一그 主演 짯스王·폴화이트맨一黨總出演

百萬弗의感激 (Thanks a million)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近代짯스音樂의帝王 폴·화이트맨第一流 라디오藝術家總登場 滌暑唯一의最 大娛樂映畵 에리라·포·마渡米第一回作品

空中을나는音樂 (Music in the Air)

요에마이 監督 그로리아스완손 主演 牧歌와都會의짜스여러분의 마음의 琴線에 淸爽한우숨과詩情을보내는 佳作

◆日活超特作映畵 追分三五郞 黑川彌太郞 主演

六日부터四日間 朝鮮最初의深夜興行 每夜十時半부터一時間餘 料金十錢均一 오림픽뉴ース三卷、米國十大學校歌漫畵二篇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7月29日より8月4日まで 晝夜三回上映

上映時間表

姿なき魔刀	1-2-0-0	3-4-5	7-4-0
朝日ニュース	1-0-7	4-2-2	8-1-0
水上日本	1-2-3	4-3-6	8-3-6
漫畵恋歌	1-4-0	4-5-5	8-5-6

入場料金 40錢 60錢

浪花館

闘部九州男 木下雅弘主演 怪猫佐賀の夜櫻

石山稔監督作品! 大都映畵社超大作時代劇

가스린 오一에엘一 主演 조온하!드氏 暗黑街總攻擊

名匠조셉프 폰 스탄버그氏監督作品 米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映畵! 『카르롯』 『루고시』 二大怪星의主演 經頂篇! 過去에이가튼映畵가잇서 든가? 斷然二種보지못한最大驚 冠이다 科學藝術의精華를모이여

妖姬 호란시 一스토레一그 應助演 二大 그로리아 스완슨 主演 盛星 베라루고시氏 科學映畵의白眉篇이요 戰慄奇怪의

透明光線

名匠람바ー드히리아氏大作 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當七月三十一日早日超特別大興行 千載一遇의名映畵封切!

黃金町 電光二一九五 優美館

東浦桃花町 電龍三三三番

桃花劇場

痛快篇 女人禁制 監督……아니셜리트바一코氏 主演……리리안하부에이孃

◇新乙우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감독……칠말트·윌트렌드氏 主演……콘란트氏와이드氏 豪華版 黑騎士

◇新乙우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으로映畵藝術의 黃金篇 한巨匠과林生員、李蘭影、羅品心 江南香外五十餘名出演과오케쨔스 밴드의朝鮮音樂이交集된三十餘名 映畵의金映人、金尙鎭外五人의製作 百萬人의興味인特殊脫帶五十餘名總網羅 朝鮮의자랑인半島歌舞의孔雀이요 其他朝鮮藝苑의精鋭總出演……

노래朝鮮

監督……金尙鎭 音樂……오케쨔스밴드出演 高麗管……金海松……林生 員……羅蘭心……江南香

◇오케映畵社超特作全發聲映畵 朝鮮初有音樂映畵

八月一日부터特別晝夜二回上映 晝一時半七時四十分 始映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乙女鏡

監督 新鋭川手二郞 新興キネマ大泉現代劇全發聲

巨匠フランク·ボーザーギ監督 ユナイテツト超特作日本版

秘密

江川なほみ、飯塚敏子主演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全發聲 鮮日夢夜三回興行 大人三十錢 學生小人二十錢

監督 山內英三

メリイ·ピックフオード レスリイ·ハワード 共演 オール·サウンド版

若衆白柄組

尾上菊五郞、久松美津枝、白石明子 主演

永樂町 電本二〇五番

中央館

●今週の料金(階上階下均一) 大人二十錢 學生小人二十錢

◇大週封切の名畵◇ 雷5月日封切(五日間)
1、嘯の爆音
2、夜明ケ島
3、キートン喜劇大會

獨占에맛부친三井 洋襪統制를劃策
內外地一手販賣權獲得運動
平壤商界에一大衝擊

【平壤】평양부내에는 양말공장이 사십여처에달하여 직조기계가 일천대 년생산액은 사백만원에달하는터이나 그중에서 십오공장만은 양말동업조합(洋襪同業組合)에가입하여 상당한통제를 밧고잇스나 그밧게 이십여공장은 무모한 자유경쟁을하고잇기때문에 그업적도 실로 한심한상태에 잇서 일반은 전부가 조합에가입하야 우리평양조선인의 독점사업인 양말공업에 대내 대외적으로 권위를 향상하도록 희망하고잇는바이지만 최근 동제품판으로 독점에 맛을부친 삼정물산(三井物產)에서는 양말에 손을 다시 대기시작하여 가일층 양말업자의 일치단결의 필요를 느끼게한다

얼마전 북조선 모회사에서는 남양(南洋)상선만타를 주문하여왓스나 이것은 모르는 주문이므로 남양에적합한 생산을 하기위하여 수십만원을 투입하여 설비를 개선할수업는 현상이어서 주문을 거절햇는데 뒤따러 삼정물산에서 양말동업조합에향하여 조선내외의일수판매를 요구해왓다

그러나 양말동업조합측으로서는 조선내지의 판로를 양보할수업고 조선외부의 일수판매권만은 양보할수잇다는 견지에서 목하교섭을 진행중이나 일방삼정물산은 미가입양말업자들을상대로 모종의 공작을하고잇는모양으로 만일평양의 양말업자들이 공동보조를 비상시기에 취하지못한다면 결국 대세에 밀녀서파멸의 운명에 직면하고야 말것이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이때문에 평양부내 조선인공업가운대에서 단연두각을 나타내이고잇는 양말동업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대외관계를 유리하게 전개시켜야 될것이라한다

旱魃끄레長霖으로 農作에二重打擊
山地帶에는또다시冷害가念慮
咸南에大減收難免

【咸興】남조선지방에서 수란의비보를 듯고 잇는이때 함남지방은 매일계속되는 장마로인하야 농작물의 성육에 지장이 적지안타고한다

함남지방은 양력칠월부터 흐리며 서시로 구즌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아직까지 하로도완전한 해비츨 볼수업서서 매일흐린한 장마가 계속하고잇다

이로말미아마 평지대의 도작전작물은 충재(蟲災)가 만연하기를 시작하고잇다고하며 풍작(豊作)을 전하고잇든 산지대의 농작물은 다시금 랭해(冷害)를 밧고잇다고한다。전까지는 미증유의 한해(旱害)로인하야 성육(成育)이 극히 불완전하야오든바 다시금 이와가튼 긴장마로인하야 수확의 대감수는 필경면할수업스리라고 농민들의비관이깁다

北朝鮮一帶에는 稀有의大豐兆

【會寧】회령부근일대에는 춘경귀에 얼마동안 가물기때문에 파종하기에 농가에서 염려되든바 그후부터는 긔후가 순조롭게되여 산야물론하고 무른곡물이든지 아주성장하야 지금현상으로는 사오십년이래 처음보는 대풍작을 예상한다는데 지금부터 일반농가에서는 성숙긔까지 다른 재변이업기를바란다고한다

府民의多年懸案 公會堂新築期成
總工費十五萬圓豫算

【木浦】목포부민의 다년간현안인 목포공회당(木浦公會堂)은 삼십오년전 개항당시의 구건물로 오늘에잇서서는 퇴락하야 협착하야 목포부민의 공회당이란 면목을 유지하지못하야 목포부민의 불편은 날로 심하여가고잇다 그리하야 지난 삼십일에 관민유지 수십명이 공회당에 회합하야 목포공회당신축긔성회(木浦公會堂新築期成會)를 조직하고 수십명의원을 선출하엿든바 다시지난일일 오전 구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제일회의원회를열고 신축긔성회에대한 제반규정방법을 협의한결과 총공비십오만원예산으로 곳시행에착수하기로하엿다 듯는바에의하면 현재수만원이잇고 또일반부민의 긔부한것이 열성적염당으로보아 십오만원쯤은 그다지 난문제가아니라하며 아푸로 긔부금모집은 주로은행회사를상대하리라한다

三千圓의經費로 記念館을建設
鏡城普校同窓會서

【鏡城】경성보교는 도내에서가장오랜 력사를 가지고 금년에 만하여도 일천오백여명에 이르는 유일한교육긔관인데 보교로 승격한지 금년 구월일일로 만삼십주년이 된다고한다 이긔념날도 머지안흐므로 동교동창회에서는 이미 긔념사업을생각하야 오든바 지난 이십오일 긔념식을 결심하고 다시 동창회를 열고 긔념관을 건축하기로하고 삼천원 예산으로 긔념관을 세우기로하엿다는데 경비는 회원에 한하야 거출하기로 하고 금년내로 완성할 예정이라는데 실행위원은 아래와 갓다고한다

▲實行委員 [illegible] 庶務 [illegible] 會計 山下久男 朴翼英 ▲各方面委員 邑內 [illegible]

經德 安仁鎬 李周攸 李鶴張 同倫 宋顯鈞 金瑞千 李一求 尹學洙 高潤琳 李世稙 李雲洛 羅南 姜昌鎬 崔景和 全鳳郡 咸容洙 馬鶴南 淸津 池鳳來 蔡潤林 金鳳南 金八萬 林泰虎 茂山 張賢泰 李允相 新站 尹錫殷 李錫鶴 會寧 金鐵洙 金昌洙 圖們 玄圭煥 雄基 林寶逸 金世煥 林英權 生氣嶺 尹福連 金河潤 朱乙任 周若 金河鉉 宋景煥 漁大津 安炳模 崔創煥 金東俠 明川 洪久南 朴明煥 李雲澤 在州 全東俠 權弘洙 臨溟 鄭元鳳 城津 崔文星 獨津 李禎洗 李應植 張壽山 京城 朴元泰 金淳松 咸鏡元 新京 池貞奎 哈爾濱 李雲興 孟斗思。

本報支局後援의 全朝鮮弓術大會
八月十、十一、十二日間

【金堤】찌는듯한 삼복(三伏)의 더위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녹일듯 혹염의 위세를 떨치고잇다 전북변산해수욕장조합「邊山海水浴場組合」에서는 자연을 극복하는 『억센조선』의 무사(武士)들의 단련을 꾀하고자 오는팔월십일부터 삼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전조선궁술대회를개최한다는데 동대회를 후원한 부안 [illegible]과 본보외 두신문의 김제(金堤)와 부안(扶安)각지국과 분국에서는 열렬한후원을하기로한바 자세한내용은 좌와갓다 사도에 소양이 기픈이들은 하로속히 주최측과 후원각단체에 신입하야 절대의 응긔를 올리기를 바란다한다

一、日時 來八月十、十一、十二日(陰六月二十三、二十四、二十五日)三日間(雨天順延)
一、場所 全北扶安邊山海水浴場
一、會費 一人當一圓五十錢(但食券一枚進呈)
一、賞品 一等一人五〇圓 二等二人五〇圓 三等三人五〇圓 四等四人三〇圓 五等五人三〇圓 六等六人二四圓 七等七人一四圓
一、主催 邊山海水浴場組合
一、後援 朝鮮日報外兩新聞의扶安、金堤支分局
一、申請場所 主催及後援各團體
一、申請期限 來八月八日까지

婚姻이말성되야 處女鐵道自殺

【吉州】장마비는 쉴새업시 나[illegible]

實兄殺害嫌疑로 兄妾刺殺코自首
光山郡下殺人事件後聞

【光州】지난칠일오전열한시경에 사십여세되는청년한명이 전신에 피투성이가되야 광주서(光州署)에출두하야 극도의흥분된어조로 나는사람을죽엿스니 죽여주시요 하고자수한사람이잇다 동서원은 긴장하야 즉시취조하야보앗는바 그는광산군지산면일곡리(光山郡芝山面日谷里) 사는 노석근(盧碩根)(二七)이가 지난이십일일에 그 자긔형의집에서 폭사하엿는바 그는 노석근의첩 최옥주(崔玉珠)가 살해한것이라하야 일일오전구시경에 노석철은 최옥주를형의묘압헤 유인하야끌고가서 길이 황조가량되는식도로 찔러죽게하고 그와가티 자수한것이라한다

信徒의熱誠으로 禮拜堂을新築

【淸州】긔독교조선감리회청원교회(慶北老會教役者修養會)에서는 교세가 번창함을따라 신도수가근 오백여명의 다수에 달하게되여 현재 례배당으로는 매우협착하야 신축하기로되여 지난칠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바 총공사비가 이만오천원이라는바 오백여신도의 물심양면의 성열은 참으로 위대한바라한다

金炳鎬牧師功績 表彰式을準備

【淸道】금년부터 자인(慈仁)교회로 전근한 청도 김병호(金炳鎬)목사는 청도군산서 산동자래를 두루 편답하면서 춘풍추우 십여성상을두고 하로가티 군내각교회를위하야 성의껏 노력하야온 씨의평소전도사무와 및 공로를 표창하는의미로 금월이십일 경북로회교회여자수양회 사와 각교회에 신망이만흔 김만성(金萬成)전도사의 긔념식을 거행하고 박영훈(朴泳勳)씨외 김정도(金正道)씨가 긔념식준비의 사무를띄고 재청도각교회를 순방하고잇는중이라한다

金光樂氏特志 種麥無料配給
百六十戶貧民에

【金城】김성면방충리(芳忠里)에 거주하는 김광락(金光樂)씨는 본래부터 남다른특지가로 유명한 분이든바 금번을당하여 김성면 구지못하는극빈자가 일백륙십여호에달함으로 이를본씨는 또다시자진하여 매호에 보리 한말(大斗一斗)식을 분배하여 주엇다는바 이에대하여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

昔時馬韓의王都 益山古蹟의巡禮 (三)
裡里支局 一記者

▲王宮坪…王宮石塔과 勝石! 나는 발서 몹이 흘히 困倦하여지기 始作하엿다 자긔가질것다 그러나 오늘은 期於코 마치도안하면서도 거름이 무거워 생각을 決心하고 다시元氣를 生시키라고 나무밋그늘에 안저 다시 한참을 거뤄가서다! 王宮 坪는 益山邑에서 東南方으로 約二十五町의 距離 在하여 王宮石塔이라 稱하는 湖 [illegible] 하고 東西는 短하야 長方形의 地點에 盛土를 지어 土壘를 作成한 痕跡이 分明이 現存하야 있다 傳說에 依하면 附近村人들이 新田時에 磁器及瓦石과 抗石을 發見하는데 抗石은 地下 石垣이 有하고 石下에는 [illegible] 城門 其他 一面에 있는 [illegible] 外이며 石製은 長久한 歲月에 水洗의 五層塔이다 位置는 王宮坪과 互相照應한 約二十尺前面에 屹立한 가장 [illegible] 하야 …

▲王宮塔…距今二千百二十年前 馬韓時代에 建立한 石塔으로 王宮에는 [illegible] 가 있셧다고 한다 [illegible] 기단을 버서 塔身第一層의 隅石은 幅이 約六尺五寸이요 高가 約四尺五寸으로 八個의 石材로 組成하엿스며 第二層隔石下의 塔石은 九個石으로 構成되엿다 그隔石은 一石으로 作成하엿고 第三四層의 隔石은 各二個式이요 第五層은 다만 隔石으로서 偉然치 못하고 各層隅石四隅에는 各其 小孔이 有한데 此는 掛鐸庭인듯싶다 建塔의 原因은 傳說에 依하면 百濟名僧 道詵이 完山(今全州)의 地形이 走狗와 如하다 하야 此地에 塔을 세워서 狗尾를 壓伏케 한다는것이엿다하며 後百濟 甄萱이가 高麗王氏朝에 屈伏하엿든것이라고도 한다 그리하야 塔成日에 完山은 三日間 黑天地 가 되엿섯다고 한다 아모리 名僧이라고할지라도 來世에 高麗와 後百濟가 잇슬것을 엇지 알엇스며 또는 自身이 百濟人으로서 後百濟를 그러케 憎惡하엿스리요? 甚히 荒唐無稽之說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그리하야 [illegible] 그는 그럿케 내 [illegible] 谷蘇先生의 王宮詩를 한首써보기로하자

雪中舊宮塔 樂之寥廣聞 却疑仙人事 只無承露盤 又疑華表柱 遼鶴何時還 若欲蒸奇絶 峰峰月禪山

이제는 人石을 차저보랑으로나서다가 생각하니 악가 灌勸塔을 求景할때 點心을 먹으라다가 王宮塔을보다 음에 먹으리라고 미루어두엇든 點心을 이곳에서 먹기로하고 짐머저를보고 다리를 곳피노코 밥을 먹엇다 내가만일 愛酒家라면 이곳에서 바다시 한잔 술을마시엇슬것이요 한잔 술을마신뒤에는 한장의 詩調도 엇지못햇슬것이다 벌써 고 나는다시 人石이 서잇는 곳으로 발길을 옴기기始作하엿다

◇……五層의王宮塔

忠南의特產苧麻布 檢查制度一層强化
無檢查密賣者嚴罰方針公布
當業者間에影響至大

【大田】전선적으로 유명한충남모시(苧麻)는소화이년삼월십오일부터 도령으로 검사규정(檢查規定)이 제정되야 매필에대하야 검사표를 십전식징수할뿐 아니라 검사원의 검사가 너무혹독하야 이것을 생명선으로 알고잇는 부려(扶餘)서천(舒川)청량(靑陽)보령(保寧)등지의 수만호에 달하는제조업자에게 적지안흔 고초를 밧게하여 나려오는 반면에 이것을 검사맛지안코 비밀리에서 매매하는 제조업자가 나날이 늘어감을 예방하기위하야 충남도에서는 검사규정을 개정하고 무검사 매매업자는 엄중히 취체하게되엿다는바 이번규정은 일반제조업자에게 적지안흔 타격을주리라고하야 개정되는 법규의운용여하를 일반은매우 주시하고잇다고한다

술갑싸움에 마저죽어

【咸興】술갑스문제로말미아마 서로싸우다가 필경 목숨까지 일케되엿슴이나흘 상해치사사건이 [illegible] 함주군 주서면 상암리(州西面三岩里) 김홍주(金弘周)(三七)는지난 이십칠일 오전영시경 함흥부황금정 이정목(黃金町二丁目)홍배식(洪培植)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갑스로인하야 작부 리도화(李桃花)와 서로말다툼이 생겻든바 그때에 싸움을 말리다고 나선 김흥섭(金興燮)(二)이가 작부의 편을드러 김홍주의 아래배를 찻는바 김홍주는 현장에서 혼도하얏슴으로 즉시도립의원에 진찰하엿든바 신장(腎臟)이 파렬되엿다고 하야 수술을하얏스나 드듸여 삼십일 오전한시에 죽어버렷다 함흥경찰서에서는 상해치사사건으로 때를놋치지안코 김흥섭(金興燮)의 가족다수를 인치하고 취조중이다

中等校增級斷行
入學難을緩和코자
全南道學部課新計畫

【光州】전라남도는 타도에비하야 인구의주밀과 산물의 풍부함을따라 자연교육열이 더맹열하야 도내초등보교 이백오십여학교에서 매년산출한 일천여아동은 상급학교에 가고저하여도 도내 이상중등학교에 말할수업는 격렬한 입학경쟁으로인하야 입학치못하고 금춘입학당시에도 광주모교에 입학이못되여 그의부친이 비관자살까지잇섯든바 전남도당국에서 광주농교(光州農校)와 광주고보(光州高普)에 각각학급증가를 단행하고저 학무국에 그구체안을제출하얏는바 승인즉시입학난을완화시킬방침이다

地方人事

▲張鳳鎬氏(殖產銀行產業金融課長代理) 轉勤人事次本報江景支局來訪

金剛山探勝團募集

【永安】금번주안여주최 복보지국후원하에 세게이름을 날리고잇는 명산금강산탐승단원을 모집하기로되얏는데 일반은 이긔

平壤

第一回 郡對抗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六日午前九時
▲場所 公設運動場코ー트
◇主催 平壤庭球團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中等校設立基金 三萬圓自進喜捨
木浦金哲鎭氏美擧

【木浦】십수년전부터(十數年前)목포에 중등학교를 설립하라는 목포부민의 다수의 희망이 잇섯스나 그동안 여러가지로 준비에노력중이든바 일반정세로보아 목적을달성이 곤란함으로 삼년제(三年制)의중등정도 잡종학교설치계획이라하야 지난팔월이십구일에 삼만원예산으로 목포중등학교설립기성준비위원회(木浦中等學校設立期成準備委員會)로 조직을변경하고 삼만원조성을 준비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이소식을들은 목포북교동 김철진(木浦北橋洞金哲鎭)씨는 금삼만원을 기성준비위원회에 자진 희사하엿다하야 삼만원재단의중등학교설치는 별난문제가아니라고 일반은관측하며 더욱지방유지의 자진희사가잇기를 크게긔대하야 마지안는다한다

寧邊某秘社事件
連累一名을檢擧護送
泰川郡에까지불똥이튀여

【泰川】지난칠일에 평북 녕변경찰서에서 [illegible] 와 그후 사건은 결정 [illegible] 복교동원이 형사를 대동하고 야 지난 이십팔일은 녕변경찰서장의 령장으로 태천군(泰川郡)에서 유명한 회자로 인정되는 [illegible] 를 검거하야 녕변으로 호송하엿다는데 사건의 내용은 당국에서 절대비밀에부치고잇서 알수업스나 일반은 자못 주목하고잇다 한다

리어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때 지난이십오일 오전두시 상삼봉 한경선 길주역남 일키로 거리 남대천에 철교 도상에 어떤 젊은녀자의 자살시체가 잇는것을 철도공부가 발견하고 즉시조사한결과 그는 길주군 영북면 류성동(吉州郡英北面)에 거주하는 최봉순(崔鳳順)(一八)으로 안식에 병을 얻어 그부친을 일로 어머니와함께 생활난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년동 시내 리수윗(李守允)(假名)이란 사람에게 시집가기로 어머니가 약혼하야 오든바 일정에 새로 허성윗(許成允)이란 사람과 다시 약혼을 하고 그날그날 생활하야 오든바 이것을 모른 어머니는 뎐일전(?)이라는청년과약혼까지 하야 양남의 행복한 생활을 개척하라고 하엿스나 그의 어머니는 두사람을 다 조타는 의견으로 서로상반하야 양편에서 결혼하랴고 다투어 [illegible] 이 처녀는 이를 번민하던 끗헤 자살한것이라고 한다

孝校長家族殺害犯 公判無期延期

【咸興】경기도 함흥 [illegible] 교장(孝校長)의 일가족 사명을 살해한 범인 우창섭(禹昌燮)(二)의 공판은 지난달 [illegible] 에 열리기로 되엿든바 변호사측의 신청으로 공판은 무기연기되엿다 한다

十人組拳銃强盜 副葬金品을强奪
寄宿安置所를襲擊、棺七個破壞하고
安東縣下의「그로」事件

【安東縣】수일전 안동현칠도구(安東縣七道溝) 긔숙안치소(寄宿安置所)에는 권총을 가진 강도 십인조가 침입하야 만주인 로미의 집에 드러가 관을 부수고 그안에 부장한 금품을 강탈하야 도주하얏다는데 동안치소에는 안동 각 기숙인의 관 수백개가 노아두는것인데 그중 일곱개를 깨트리고 부장한 귀금속 금은을 가져갓다 한다 이번사건은 만주인 강도단의 소행으로 안동현경찰서에서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다

平南七月中雨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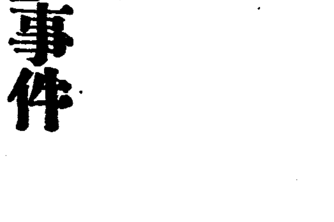
【平壤】금년칠월중 평남도내 각지의 강우량은 작년에비하야 매우 만흔편이라는데 평양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illegible]

新改修依然激增
今年드러九百六件
擴大되는平壤府勢

【平壤】토지가가 노픈관계로 신축가옥이 적어지고잇는 평양이지만 그래도 일개월동안에 삼천여명식 인구가 느러가고잇는만큼 여전히 신축가옥열은 왕성하다

江陵郡下에 又復殺人事件

【江陵】전률할이현상! 금년에 드러 벌서 세번째의 살인사건이 강릉에서 발생되엿는데 금번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갓다 강릉군 성덕면 [illegible] 리 손성운(孫聖雲)(二七)이가 금년오월십일 산에가서 나무를 해노코 그날분배 문제로 그이웃 동리에 살고 잇는 리종성(李鍾成)이가 가져갓슴으로 그를보고 반환을요구하얏스나 종시듯지안함으로 그길로 그곳주재소에가서 이사유를 고발하얏든니 주재소에서 리종성의 주소를 조사하고 그것을 종성에게 보히고 그는크게당황하야 사과를하면서 나무를 도로내여줌으로 나무를 차저오는 일이 잇섯다한다



愛慾의彼岸 【67】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저는 원산 가게 되엇서요』 하고 문임은 무거운 입을 열엇다。

『원산?』 하고 은주의 두 눈시울이 올라갈때에는 문임은 벌서 방으로 들어가는것 가탓다。

『네 원산』 하고 문임은 고개를 숙엿다 돌엇다 하면서

『저어、혜련이가요、어머니를 데리고 가 보신다고 그래서는、얘、아가신 뒤로는 밥도 잘 안먹고 몸이 약해저서 걱정이야요 씨께서 혜련이를 원산으로나 데리고 가 보신다고 그래서는데、혜련이 혼자만은 못 견듸려니 하고는 날 가자고 그래서요』 하고는 눈을 들어서 은주를 바라보앗다。

『저는 원산 가게 되엇서요』 라는 무슨 큰 죄나 저질른것 가타서—제 마음이 변한것은 아니지마는—용서하세요。

한숨을 지운 은주의 손을 버리어 문임은 또 은주의 손을 피하야 다는듯이 안저 한참의 손을 펴고 놀랄만이 하엿다。

『네 마음을 의심하세요?』 하고 문임은 무안이 변하야와 간 분함을 느끼면서 물엇다。

『아니오』 하고 은주는 여전히 돌아 잇는 얼골을 이리저리 옴겨놋는다。

『그럼 왜 그래서요? 왜、아모 말이업스서요?』

『아니오』 라고 은주는 한참이나 말이 업다가、

은주는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문임은 한 걸음 은주를 따라간다。문임은 은주의 거장세게 느꼇다。

『나가티 고등교육 못 바든 사람은 문임씨 가튼 양반의 마음을 알수가 업서서 그러지오』 하는 은주의 말에는 확실이 풀긴듯하엿다。

『그럼 절더러 혜련을 떠러가지말란 말슴이에요? 제가 이번길에 가는것이 못마땅한 말슴이야요? 왜 절더러、문임아가지말아라、못 그러서요? 저를 사랑하시지아니하시는게죠?』 하고 문임은 때전하여던 형세를 다른 전술로 돌리려하엿다。

문임의 열잇고 눈물 어린 눈이 은주는 원하던 손을 멈추고 문임을 바라보면서

『모도 두고보면 알지오。말이 무슨 쓸데가 잇서요?』 나하구 가티 다라나자던이가 인제는 김장로아저씨를따라서 피서를 간다는 세상에 말이 무슨 소용이야요。덜 반신하다더라도 하게지오。어서 가세요。네 은 신다니 그때에 보면알겟지오。

나는 잠자코 홀로 지내다가 다시 이 업지오。』

은주는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문임은 혜련에게 엇더한 생각이 드는 듯 문임은 옛일을 생각하야 의심을 아니 거두었다。

『저는 가기실다고 그랫서요 집에 잇는다고。세번이나 네번이나 거절을 햇서요。그랫건만 도 혜련이가 자꾸만 울고 부뜨는구먼。언니 아가면 나도 안 가다、고。그러니 어떠케요? 어떠케 안 간다고 할수가 잇서요?』

하고 또 한번 눈을 들어서 은주를 바라본다。

은주는 이번에는 고개도 끄덕거리지아니하고 다만 멀거니 문임의 눈을 들여다볼뿐이엇다。

『그래서』

하고 문임은 하던 말을 이어서、

『아모리 핑계를 해도 할수가 업서서 가기로 햇서요? 내일 떠나요。용서하서요』

하고 은주의 손을 찾아서 꼭 쥐이면서 애원하는드시 은주를 치어다본다。

그래도 은주가 말업는것을보고、문임은 무안한드시 은주의 손을 노흐면서、

『김장로아저씨가 그후에는 도모지 아모런 눈치도 업스서요 아마 그냥만 잠깐 화장하다가 섯던게지요? 그래도 이번가는것 평정하여진다。』

朝鮮內金融體系

特殊銀行이 一面普銀化 殖銀은 産業界勢力掌握

朝鮮內 普通銀行은 겨우 七個銀行에 不過하지만 金融組合의 數는 그와 反對로 激增되고 잇슴은 前回에서 말한바이나 이밧게도 金融機關의 變化가 顯著케된것을 두가지의 方面으로 들수가 잇다 卽 (一) 昭和六年에 無盡業令에 基本的改正을 하야 資本金十萬圓以上株式會社에 限키로되엇고 또는 最近에 일로편는 京城市內無盡業合同의 計畫이 進行되고 잇는點 (二) 昭和六年에 信託業令을 發布하야 二百萬圓以上의 株式會社로 限하고 同七年十一月에 朝鮮信託會社를 設立한等

●……中樞機關 이곳에 모든 民間會社를 吸收合併하야 結局 獨占的單一信託을 만들고 말엇다。

×

이로서 朝鮮內의 金融機關은 大略 어떠한 組織을 가젓는지 알수가 잇다 卽

金融機關組織

▲商業金融 (中央銀行 朝鮮銀行) (東一 漢城 湖南 海東 大邱商工 慶南 支店銀行)
▲産業金融 殖産銀行
▲貯蓄機關 貯蓄銀行
▲庶民金融 金融組合 無盡業
▲金融機關 信託業

그러면 以上의 金融機關이 오늘에잇서 어떠한 任務와 位置에 잇는지 다시 살펴볼 必要가 잇다 卽

(一) 朝鮮銀行에 對하야는 이미 朝鮮中央銀行의 必要論이 云謂되고 잇슴으로 다시 말하지 안키로하나 이곳에서 한가지 밝히지 안흘수 업는것은 朝鮮銀行이 普通銀行의 業務까지도 兼營하고 잇는 點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朝鮮銀行은 中央金融機關인 만큼 朝鮮의 中央銀行으로서 銀行의 信用을 維持하고 金融市場을 統制하여야만 되는 立場에 잇는것이다 그러나 朝鮮銀行이 普通銀行業務를 兼營하야 그 上位에 잇서야만 될것이다

그래서 朝鮮銀行은 普通銀行을 指導하는 地位에 잇는 一面 普通銀行과 對立되는 地位에 잇는것이 中央銀行의 日本銀行과 달리 朝鮮內 普通銀行이 되어 이때문에 朝鮮銀行은 普通銀行業務를 兼營하는 矛盾된 位置에 잇다。

(二) 殖産銀行은 産業金融機關이라 그 業務의 範圍가 매우 廣大하고 따라서 그 勢力이 大規模이다 그러므로 이 銀行이 各方面으로 손을 버리고 잇서 그 金融的勢力은 朝鮮內 産業界의 大部分에 對하야 그 勢力을 잇어 朝鮮內 企業的大會社는 거의 全部가 그 傘下에 集中되고 잇는것이다 그래서 지금에 殖銀은 다시 말하면 特殊銀行이면서 産業金融의 重要한 任務를 가지고 잇다。

×

그러면 朝鮮內 金融機關은 普通銀行이 貧弱한 大小 殖産 普通銀行 …… 朝鮮中央金融組合聯合會 …… 殖銀이 中心이 되어 ▲朝鮮信託會社 ▲朝鮮殖産銀行 ▲朝鮮石油會社 等 모두 殖銀의 傍系會社를 이루고 잇다 (朝鮮商業銀行本店)

朝鮮米對滿輸出 今年顯著減少

前年同期보다 四分一에不過 ◇……滿洲米增産結果

朝鮮米輸出은 昭和以來漸減하여오는데 七月中에도 九百二十六石으로 前年同期一萬二千石에 比較하면 十二分一에 不過하고 結局昨年十一月以後累計는 七月까지 三萬四千二百石으로 前年同期의 十二萬六千六百九十九石에 比較하면 四分一로 激減한數字이다 이것은 滿洲國의 米增産의 結果 滿洲粟輸入以來 顯著히 늘어은 朝鮮米輸出의 減少를 보게된것이라고한다

朝鮮米移出減少

七月中三十五萬餘石 粟輸入量續增加

【總督府調査】七月中의 朝鮮米의 移動狀況을보면 米의移出은 下旬中의 十七萬一千餘石을合하여 三十五萬四千八百七石으로 昨年同期의 五十二萬九千二百八石보다는 十七萬五千餘石이 減少되여 昨年十一月以降 累計로보면 八百十二萬九千二百四十二石으로 昨年의 七百八十九萬九千九百餘石에 比하야 十七萬四千餘石의 增이다 百餘石보다는 二十二萬九千餘石의 增이며 滿洲粟의 移入은 七月計가 十五萬六百十四石으로 昨年同期의 十一萬四千三百餘石에 比하야 三萬六千餘石의 增을 보앗다 昨年十一月以後 累計로보면 百十一萬三千六百八石으로 昨年의 九十三萬九千三百七十九石에 比하야 十七萬四千餘石의 增이다

下關一二四錢 廣島吉浦尾道六五、五〇(二五錢)其他瀨戶內海六九、五〇(二六錢)清水京濱七五、〇〇(二六錢)名古屋七〇〇(七錢)

그리고 朝鮮內 各港阪神下關의 運賃은 다음과 갓다

新義州七六、〇〇 鎭南浦 海州六八、〇〇 仁川群山六五、〇〇 木浦六三、〇〇 馬山四六、六〇 釜山四三、三〇 浦項五〇、三〇

大阪府知事에게 商工課에서 抗議

組合定款變更不許可키를 袋入白米問題擴大

【大阪白米商을中心으로 袋入朝鮮米의 販賣를拒絶하려는 運動을 이르켜 日本內地六大都市의 小賣商組合에게 同一한步調를 取하기를 勸하고잇서 이는朝鮮米를 不當히壓迫하려는것이라하야 朝鮮側에서는 米穀組合會를 爲始하야 各方面에서 그不當을指摘하고잇섯는데 最近에와서大阪白米小賣同業組合에서는 態度가 漸次惡化하야 袋入朝鮮米排斥을目標로同組合의 定款을改訂하려고 하고잇슴에 總督府商工課에서는 默過할수업다하야 大阪府知事에게 同組合 定款改訂을 不許可하도록 警告하여달라는抗議를 依賴하기로되엿다

袋入米不賣 穀聯에通告

大阪米商組合이

朝鮮白米不賣問題에 對하야 朝鮮은事態의 惡化를 憂慮하야 關係方面에서는 對策을 맨드는 것인데三日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 大阪米穀同業組合長木谷久一氏外三名의 일홈으로다음과가튼 決議를 通告하여왓다고 한다

(一) 今後朝鮮米袋入白米는取扱치안이할것 但同團에서場方에配賣하는等의 目的으로써 取扱하는此限에 不在함

(二) 同業組合의 定款을 改正하야 袋入白米不賣를 强制的으로 實行

對策講究 緊急幹事會

朝鮮穀聯에서開催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朝鮮白米袋入不賣問題의 惡化를 보고 五日 京城俱樂部에서 緊急幹事會를 열고 그對策을 講究키로 되엇다고한다

(三) 大阪商工會議所에 提出建議案(白米袋入에關한件)要望促進의件

(四) 千成會를 卽時脫退

朝鮮米積載運賃

各港賃金差額

朝鮮米運賃問題는 西朝鮮京濱間標準運賃의 決定에 依하야 全部解決하고 八月一日부터 新運賃에依하야 船會社의 新聞價鮮米輸送協會加盟船會社는 朝鮮米積載를 시작케되엿다 新船定標準運賃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阪神販賣六五圓〇〇(一噸一以

鮮滿拓殖會社

設立委員을發表

鮮滿拓殖會社設立委員은 三日任命發表되엇는데 全二十八名中總督府側은 委員長에 今井田政務總監以下 七名 拓務省側二名 朝鮮軍 關東軍側五名 滿鐵滿洲國側各一名 銀行團側六名 其他朝鮮實業家側六名이다

對外爲替市勢

【東京三日電話同盟】

▲東京爲替

對米 賣二十九弗十六分五 / 買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一志二片 /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二十九弗八分一 / 買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一志二片 /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東銀新營業方針

【三日支店長會議에서 新重役으로부터指示】

東一銀行에서는 三日午前十時半부터 支店長會議를열고 新重役으로부터 人事를發表하야 新營業方針을 指示하엿스며 따러서業務上의 協議를하고 午前中에散會하엿다 그리고前頭取閔大植氏는 支配人代理級以上의 行員을午前十二時半頃에 朝鮮호텔로招致하야 慰勞宴이잇섯다고

朝鮮火保總會 朝鮮火災

昨年度煙草賣上

四千二百九十萬圓

專賣局의 昭和十年度 煙草賣上高合計는四千二百九十三萬六千圓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三百九十萬圓의 增加이오 各地方專賣局別로는 左와같다

京城一千六百五十一萬九千圓、全州九百六十八萬九千圓 大邱八百十二萬三千圓、平壤八百五十萬二千圓

經濟寸鐵

○ 當局은 六萬五千町步 未移秧畓에 代作獎勵

○ 代作을 하더라도 代作의 半이 못되겟스니 小作人은 어찌살고?

○ 그나마 大多數의 地主들은 貪婪一貫으로 移秧만 督促코 代作不肯이라나…

○ 十年度 煙草賣渡高가 四千二百九十萬圓 比前年度 近四十萬圓增加

○ 朝鮮의 人口를 二千三百萬人으로치면 每人約二圓의 消煙費

○ 海東과 湖南兩銀行의 合併은 畢竟 成立될모양

○ 이 다음 차레는?

重要商品界事情

紡績採算低下

新棉은利益勘定

古棉은 大體로不足으로 日本內地棉花商의 呼價도 比較的 안떠러지고잇는때문에 紡績의 採算은 新棉의 低落이 大하 엿슴으로 다시惡化할 傾向이잇다 卽

番手 棉代 原價 市價 利損
六〇 三三 四四 四一 七
四二 三五 三三 三二 二
四〇 三二 三五 三三 九
三二 三一 三〇 三五 一五
二〇 二八 二九 二五 二〇
一六 二三 二六 二二 二〇
一〇 三五 三二 四〇 三〇

顯著히 惡化한것은 瓦斯系의 約十圓四〇、二〇의 各五六圓低下이다 그러고 이것을 新棉으로 보면 (米棉四圓、印棉二圓五十錢低의比例) 다음과가티 모두利益勘定으로 되어잇다

番手 棉代 原價 市價 利益
六〇 三五 三七 三三 三
四二 三三 三三 三二 二
四〇 三三 三二 三二 一〇
三二 三八 三〇 三二 一三
二〇 三〇 三二 三五 六
一六 三二 三五 三七 一九
一〇 三〇 三二 三六 三

【備考】 市價는 모두九、十月物中 品級會社豫想市勢 △採算比例票

株式 旬間

同一圈內

商況 三日

前場高、後場低

取引停止 (七月三十日)▲京城府黃金町二三六番地殷樹極▲京城府弘濟町一一九番地韓國近澤太郎▲京城府臥龍町一六九番地吳鴻奎▲京城府樂園町一三六番地韓洛惠

前場續强 今前場도 實物消極的買物으로續强이엇스니 即再昨前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高引五十二圓四十錢 日産三十錢高인 七十九圓三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七十一圓八十錢 日魯三十錢高이고 日産新二十五圓九十錢拓新二十一圓二十錢이엇다

後場更弱 後場은 民賣로 更弱이엇스니 即東新百二十二圓九十錢、大新六十七圓、日産七十八圓六十錢、朝新三十圓七十錢丁、日魯七十一圓三十錢 新新二十二圓三十錢이엇다

東新尙戾賣?

七月에 드러서 大下放된 東新이 百二十圓三十錢에서 百二十四圓三十錢으로 갓신히 四圓戾를 示함에 그치고 上伸치못함은 如何히 無力한가를 說하는것이다 오림픽歡迎으로 다시强한맛이 잇기는하나 能히上放될가는 疑問으로서

統制經濟、增稅、國境問題等 정말懸念은 이로부터 決定될차례로서 世相不安인 此際에 무엇이 튀어나온 어떠한波瀾을 이르킬지 採算以外에는 買物이 顯著치못하니

目前一段高가잇다면 그는 絶好의 戾賣場이 되리라하야 依然弱氣側見解가 잇는모양이엇다

日産代位問題

日産이 東新에 代位할가는 市場人의 重大問題이다

一、日産自體로 事業을가지지 안코 多數한 他事業收益에 依存하는것

二、內容複雜、不安定한것

三、株式은 投資株보다도 多數投機側에게 分散되어잇는것

이 日本에 人氣的好感을 주지안케 아니라 實質的으로 各方面에 散布될것도 期待되며 選手其他來客에 依하야 撒布될金額도 莫大할것으로 올림픽이 高潮되어 生絲、棉絲、人絹等國際商品이 一齊高일뿐아니라 株界에도 如左한 刺戟을 주어섯다

▲帝國人造絹株=增資決定과 相俟하야 一擧五圓暴騰

▲郵船株=西班牙動亂을 契機로 歐洲情勢不安을 濃厚케하고 世界繫船噸數四百八十萬噸을 激減한 福音도잇서서 今朝一、二分增配豫想인데다가 올림픽歡迎으로 益高

▲洋灰株=小野田과 聯合會의 妥協成立好成 올림픽建設着手면 洋灰需要大激增이 겟슴으로 一齊騰貴

實物前場取引

▲旭石油 六宮 ▲東滿洲平 一七宮 ▲日滿亞麻 三二〇 ▲鐘水港製糖 三六宮 ▲帝麻 〇〇 ▲鐘水港製糖新 三宮 ▲朝日麥酒 二〇〇 ▲昭和人絹 三九宮 ▲富士新 三宮 木材 二六〇(取引二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傍觀하야 上伸展開되곳 傍觀이오 小淨動의 保合으로 內債는 三分半에 多少의 買物이잇고 其他不變이고 外貨도 保合인 米貨債六分半十錢高 五分半二十錢低 佛貨는 全

夏海上의波瀾

颱風벌서侵來

夏海上期에 直面된 新甫十月限은 百十三丁의 大下朝로 發會한 後下落狀態를 呈하더니 今朝에 入하야 阪地는 三十二圓十錢臺로 當地는 三十圓十錢臺로 突進하엿다 實로本月은 颱風의 作戱가 만허 米界의 波紋을 일으키는時代이라 벌서부터 颱風時勢가 展開되고 〇四、五錢으로 〇七錢에止揚하야

株……올림픽東京決定을

材料삼을만큼 市勢는材料가업서 걱정 ▲원악내리陰鬱하기만하얏스니 조곰이라도明朗한거리를찻질판 ▲陸相의信賴가 市場人에게기쁘가되고……陸相의 偉大는新政策 軍備膨脹을意味 ▲百人中九十九人이 弱氣이오 東新의 悲材出盡도目前에잇다 지금은이래도 一二圓할락도잇스리라는 怪氣焰까지잇는모양이나 ▲郵船으로買線이나와잇다고 살수업스니 奈何

米……新甫十限은

大下朝로 發會한後에만흠 一段反動高는 잘아리原則이엇다 ▲그러데다가 颱風이 黃海道를橫斷하야 關東地方을 襲擊한다는바람에 方은豪氣丈으로 買占不辭하는光景▲그러나開花期의 颱風이고잇다 今後의被害程度果如何? ▲市勢는벌서 行動을加하엿스니 잘아리收價를待하야 賣하는것이 良策이 아닐는지몰라▲그럼으로賣買兩方이 서로警戒를加할時機!

飈風念慮 暴騰

前場突高 後場戾賣下押

前場突高 再昨後場阪地三十一圓九十四錢止와共히 二十九圓九十三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一休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丁인六丁高를提하고 三十圓十五錢인 二十二丁突高로場을始한後 阪地十九錢으로十一錢까지 反落하엿다가 十八錢에止場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三十圓十三錢에四丁高로始場이나 民賣로 〇三錢에 反落되어 〇六錢까지 反落하엿다가 結局〇九錢에場을止하엿다

大阪國債市況

勢報一九八〇 佛貨四分利 一九八〇
▲甲五分 一〇一、六〇 ▲年三五分 一〇一、五七 ▲二八年 一〇一、七〇 ▲二回四分 一〇一、六〇 ▲一回四分 一〇一、六〇 ▲佛貨四分 一九八、三〇

持米側의 態度

依然固執乎

今回大下朝의 發會는 卽新米의 市勢를 目標한것으로 今後의天氣如何에 依하야 騰落할것은 更言을 못차지니와 今日의 稻作狀況으로보면 日本內地는 豊作을 否認할수업는 現象에잇스며 朝鮮은 昨今南朝鮮一部의水害가업지안흐나 三南은 旣히豊作의 濃厚한바이오 中部以北도 遺憾의 降雨로 旱害를一掃함에 至하엿슨즉 今後天候만順調하다면 足히 平年作을 豫期할수있다 持米側의 態度가 將來如何할지가 問題인데 아즉까지는 天災期가 남아잇는만큼 端境期의 高米價를 豫測할수잇스나 그러나 아프로 良作說이 擡頭하는 때는 持米側의 恐怖的賣物이 업지안흘것이오 딸아서米價의 瓦落을 招致하기도容易할 모양임으로 持米側의 固執은 今後의禍因이될지 又는所期의目的地에 到達하게될지 一般의注目을 쓸고잇다 果如何?

仁川在米減少

本月一日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各地正米

京城少高 定期昂騰으로五錢高唱이나 意外로 取引은不捗이엿다 ●三等三十一圓四等三十圓七十錢一等白米二十三圓

仁川少堅 今朝는 定期高에追隨하야 五錢高氣配이나 一般挽下警戒氣分으로 繼續하야 消極的態度이엿다 ●三等三十一圓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五錢

釜山頑强 一般이形勢傍觀으로積極的取引이 躊躇되나 今朝는 期米高放으로 市勢十錢高 唱인데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一三圓四十錢

大邱奔騰 定期의昂騰으로 移出側을 비롯하야 當用側의買鮮側

▲買方=地場來客側地場强氣側朝

群山昂騰

定期의 一轉引昂騰丈고 賣方의 態度依然變化하야 商談은 活氣不立이나 明은一擧로 三十錢의 昂騰을하야 ●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七十錢

木浦底强

아즉日本內地로부터 大口注文이 出現치안이나 持米側의 賣惜强하고 市況十錢堅化인 ●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

合縣米는 四七、二八八叺의減少 休日前보다 四十錢安의强勢가 되어 市勢는 三等三十圓九十錢 四等三十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物이 比較的 堅調로 推移하야인데 在庫米品種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二八三、一五三叺▲白米四斗八、九〇四叺 五斗入四〇叺▲正租五四、五七九叺▲大豆一九、三九八叺▲大麥(白)一二五一叺(裸)三〇〇叺 四八九叺▲小麥一八六叺▲粉白米一、一七六叺▲粟六、一八七俵▲荏子五〇〇叺▲粟四、五五〇叺▲蕎麥二〇四叺▲綠豆一六二俵▲糯米一、二七叺(裏)九、三二八俵▲日本內地米九、二八六俵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堂島前場强調

【大阪電話】東北의惡天候와 東京低值로 上放되어 人氣俄然硬化하야 中限은 小口賣物一巡으로中限中心으로 引締되고 地方의買煽도 加하야 三期强調이오 高價로 躍進이엇스나 利喰으로 伸惱이엿다

▲賣方=中東側地場軟派西側
▲買方=…… 今前場主要賣買는 如左하다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米 光 皿 康益商店 金益證券 株式會社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株式 期米 玉 仁川 柳來恒取引店

金融 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米 國 三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商 品 三日

◆京城綿糸布市況◆ ◆京城綱布◆ ◆綿絲布◆ ◆滿洲商況◆ ◆大連特産市況◆ ◆日本麥粉市況◆

株 國 三日

◆朝取短期◆ ◆算定 代引 日步◆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三日

◆朝取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値◆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商品 一日

◆大阪綿米◆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玉期米◆